

교육개발

Summer 2011
Vol.38, No.2

특별기획 1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의 확산, 추진과 전망
교육·일 연계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 추진과 전망
Wee프로젝트 추진과 전망

특별기획 2

「제6회 한국교육개발원·중앙일보 교육포럼」 지상중계
주제 : 한국 대학교육의 현주소와 교육의 질 제고방안

세계의 교육

일본 가토학원의 영어몰입교육, 23년간의 실험
“모든 아이는 영재다.” - 독일의 영재성 발굴교육
“체육 통해 인성 기른다.” 선진국의 체육수업

초대석

고등교육 학자금·인재육성 지원현황과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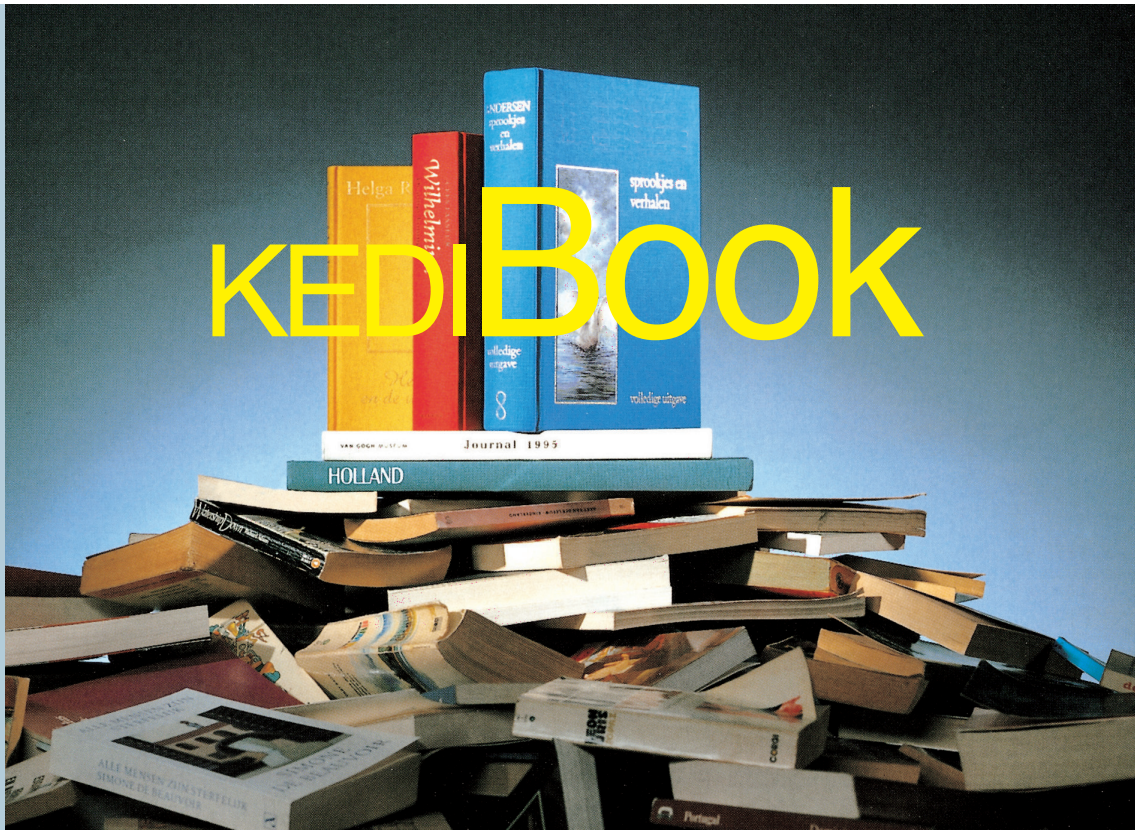
이슈와 전망

STEAM교육의 추진과 과제

정책과 현장

방과후학교의 성과와 과제

‘KEDI 도서회원’이라면 당신은 이미 신지식인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39년 동안 국가수준의 교육목적, 방향, 비전, 정책, 전략을 연구해 온 교육정책전문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 연구성과의 폭 넓은 활용과 보급을 위하여 '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를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께서는 가장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 회원 자격 및 특전

- (1)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 (2) 본원에서 계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4회)과 『한국교육』(연4회)을 보내드립니다.
- (3) 기관회원 :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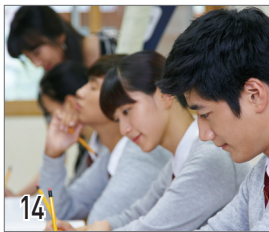
- ▣ 연 회 비 : 1계좌당 개인회원 120,000원
기관회원 200,000원

- ▣ 입금계좌 : 011916-0006202 (우체국)
070-01-0379-171 (국민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 문 의 처 : 정보자료팀 Tel : 02) 3460-0407

교육개발

Summer
2011 Vol.38 No.2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 발행인 | 김태완
- 편집장 | 문성룡
- 출판심의위원 | 현 주(위원장), 김주아, 김창환, 남궁지영, 문성룡, 박영숙, 유효순, 윤종혁, 정규열, 최상덕, 홍영란
- 편집실 | 김원기, 한지연, 전은영, 정미영
- 디자인·인쇄 | (주)선우정보인쇄 02-2272-6105~6
- 홈페이지 | <http://www.kedi.re.kr>
- 발행 | 2011년 6월 28일
- 계간 등록번호 | 서초바 00022
- ISSN 1228-291X
- 등록변경 | 2011년 1월 21일
- 값 | 6,500원
- 구독문의 | 02-3460-0319 keditor@kedi.re.kr

C O N T E N T S

4

파워인터뷰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에게 듣는다

14

특별기획 1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의 확산, 추진과 전망

김윤정 |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인재기획단장

교육·일 연계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 추진과 전망

김환식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과장

Wee프로젝트 추진과 전망

최상근 |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 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 소장

32

특별기획 2

「제6회 한국교육개발원·중앙일보 교육포럼」 지상중계

주제 : 한국 대학교육의 현주소와 교육의 질 제고방안

김민상 | 중앙일보 기자

40

세계의 교육

일본 가토학원의 영어몰입교육, 23년간의 실험

이한규 | EBS PD

“모든 아이는 영재다.” – 독일의 영재성 발굴교육

서혜애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교수

“체육 통해 인성 기른다.” 선진국의 체육수업

문익수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체육위원회 위원장

62

초대석

고등교육 학자금·인재육성 지원현황과 발전방향

이경숙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68

이슈와 전망

STEAM교육의 추진과 과제

서예원 |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연구위원

78

정책과 현장

방과후학교의 성과와 과제

김홍원 | 한국교육개발원 교과교실제 연구·지원특임센터 소장, 방과후학교 연구팀장

85

현장르포

수도권 첫 다문화학교 ‘지구촌국제학교’

황세원 | 국민일보 기자

함께 나누는 성장공동체 ‘충북청명학생교육원’

박창호 | 충북청명학생교육원 교학부장·교육연구사

“학교체육이 희망이다.” ‘서울 하나고등학교’

국영호 | 스포츠조선 기자



Power Interview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대담 _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INterview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 추진해
국격 제고하고 국부 창출할 것”

“ 교육제도 더 개방해야 발전...
사회갈등 해소에도 앞장서야 ”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에게 듣는다.

“2011년까지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고, 신성장 동력산업 같은 7대 기술분야를 중점육성하면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초원천연구 진흥을 통해 세계 7대 과학기술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을 추진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 21세기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당면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도연 위원장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성과가 많이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향후 교육정책의 추진방향과 관련, “그동안 교육계가 너무 폐쇄적이었다.”면서 “담을 허물고 개방해야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데,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데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중등교육 때부터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지난 6월 2일(목)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김도연 위원장을 만나 위원회를 맡은 소회와 포부, 비전과 중점과제, 추진방향,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들어봤다.

김태완 원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지난 3월 2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과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남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맡으신 소회와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연 위원장 : 과학기술은 국가 미래를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도 과학기술의 힘이고, 앞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앞둔 중대한 시기에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여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과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어떤 영광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과위는 이제 갓 태어난 신생조직이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서 미래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중심국가로 올라 서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 과학기술국가로 도약해 국가의 격을 높이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완 원장 : 국과위는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14조9000억원 중 인문사회와 국방을 제외한 약 67%(약 9.9조원)의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과위는 왜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요. 비전과 중점과제, 추진방향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연 위원장 : 언급한 내용대로 국과위는 올해(11년)를 기준으로 전체 정부연구개발예산(14.9조원)의 67%(9.9조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대상사업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과위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과학기술분야를 기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플래닝타워(Planning Tow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국과위의 출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사업수가 증가하는 등 연구개발 환경이 변화해 왔지만, 정부의 과학기술 업무들은 여전히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비효율성과 낭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래사회에는 에너지, 환경, 재난·재해, 고령화, 통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발전이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4년 전부터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30년, 50년 후 세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또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체계를 선진국을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

■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국과위는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14조9000억원 중 인문사회와 국방을 제외한 약 67%(약 9.9조원)의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과위는 왜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요. 비전과 중점과제, 추진방향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

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맨 앞에 서는 ‘창조적 혁신 전략’으로 새롭게 짚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국과위는 앞으로, 향후 30-50년 후를 내다보며 국내·외 경제·사회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미래 국가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과학기술의 큰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 정부와 민간영역의 연구개발 역할을 전략적으로 나누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줄여서 성과가 최대한으로 나도록 협력조정체계도 마련해서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나 중앙-지방, 산·학·연 등 연구주체들 간의 막힌 곳을 허물고 서로 개방과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의 혁신을 이뤄내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유연하고 생산적인 과학기술 연구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연구개발 역량을 한 데 모아서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국가성장을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국과위는 이를 위해 열린 자세로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예산 배분, 평가 및 환류가 선순환되게 합리적으로 제도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김태완 원장 : ‘과학기술 연구를 통한 삶의 질 및 국가의 격 제고’를 국과위의 당면목표로 꼽으셨는데, 부연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연 위원장 : 우리 정부는 국정지표인 ‘선진일류 국가건설’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마스터플랜인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고, 신성장 동력산업 같은 7대 기술분야를 중점 육성하면서,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기초원천연구 진흥을 통해 세계 7대 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국과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성과가 많이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경제적 미래가치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 나라와 사회의 수준을 결정하고, 세계의 문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 21세기 세계 중심국가의 꿈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향후 30-50년 후를 내다보며 국내·외 경제·사회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미래 국가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과학기술의 큰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 정부와 민간영역의 연구개발 역할로 나누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줄여서 성과가 최대한으로 나도록 협력조정체계도 마련해서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할 때, 흔히 우스갯소리로 돈 되는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고, 돈이 안 되는 기초과학분야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하는데, 국내 과학기술수준을 일본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기초과학을 포함해 국내 과학기술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INterview

+ Power Interview

김태완 원장 : 지난 4월 7일 열린 제1차 국과위 본회의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과학기술의 역할과 연구개발의 효율성 확보방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간략히 요약해 주십시오.

김도연 위원장 : 우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과학기술의 역할과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제품 중심의 산업시대 이후 오늘날 정보화시대를 거쳐 새로운 가치창출과 활용이 중심이 되는 융복합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과학기술은 그 변화의 핵심을 이룰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지요. 또 연구개발의 효율성 확보와 관련해서, 미래사회는 융합이 중요하므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각 분야에서 인력과 기술의 융합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를 위해 성과평가를 개선하여 우수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복된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김태완 원장 : 국과위의 당면과제 중 하나가 ‘국가연구개발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일텐데요.

김도연 위원장 : 국과위가 출범한지 2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조정·배분하며, 결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전 주기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성과평가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평가와 정부출연연구원에 대한 평가는 국과위가 아닌 다른 부처가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12년)에 대한 예산조정·배분은 국과위가 각각 수행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기적 연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가 R&D의 중요한 수행 주체 중의 하나인 출연기관의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의 창조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줘야 하는데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과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법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다방면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태완 원장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할 때, 흔히 우스갯소리로 돈 되는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고, 돈이 안 되는 기초과학분야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하는데, 국내 과학기술수준을 일본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기초과학을 포함해 국내 과학기술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김도연 위원장 : 2010년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세계 23위인데, 과학경쟁력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이고 기술경쟁력은 18위입니다. SCI 논문게재율(세계 11위, '09년 기준)이나 특허건수(세계 4위, '08년 기준)도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기초원천기술보다는 응용·개발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화에 따라 선진국의 기초원천기술을 응용·개발하는 분야에 집중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간 남들 따라가는 후발 추격형 기술발전전략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0-50년 간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초원천연구를 대폭 강화해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의 현실을 살펴보면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있는 반면에, 노벨 과학상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현실 때문이죠. 노벨상은 그 나라의 기초과학 수준을 알 수 있는 잣대인데,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본격적인 투자가 불과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 아직은 선진국 수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초과학자들이 많은 분야에서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초과학기술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곧 노벨 과학상 수상자도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을 진흥하기 위해 20-30년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또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핵심열쇠가 우수 과학기술인재 양성인데, 우수 과학인재를 육성·발굴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적 연구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연구를 실패하더라도 관용의 문화로 너그럽이 이해해주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분명 뛰어난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 우리나라 기초과학자들이 많은 분야에서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초과학기술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곧 노벨 과학상 수상자도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을 진흥하기 위해 20-30년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

김태완 원장 : 과학기술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적 인식이 미국이나 일본과 다소 다른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나 시민의식이 달라져야 한다면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김도연 위원장 : 미국이나 일본의 국민들은 과학기술이 개인과 국가의 생명과 존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강합니다. 일례로 태평양 전쟁을 들 수 있는데 미국은 종전무렵 하루 평균 200명씩 희생되던 이 전쟁을 과학기술(원폭)로 종결시켰지만, 반대로 승전을 생각하던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또 최근 일본 원전 사태 역시 과학기술과 국가 및 국민의 안녕이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과학창의재단이 지난 4월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와 국민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 높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완 원장 : 과학인재의 유출과 과학계 및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우려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팽배해 있는데, 주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발상의 대전환이랄까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있어야 할까요.

김도연 위원장 : ‘이공계 기피현상’이란 말은 정확하지 않고 ‘이공계 우수인재 부족현상’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이공계 인력의 ‘양’이 문제였다면, 현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의대 진학열기, 이공계생의 고시준비 과열 등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진출하지 않거나, 일단 진입했던 우수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질’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인구 1,000명 당 연구원 수 : 일본 10.3명, 한국 10.0명, 미국 9.2명, 프랑스 7.6명, 독일 7.2명 - 출처 : 2010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

“ 과학인재의 유출과 과학계 및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우려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팽배해 있는데, 주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발상의 대전환이랄까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있어야 할까요. ”



사). 국내에 우수 과학기술인재 유치가 곤란한 이유는 신분상의 불안정이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미흡했고, 보상체계도 열악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우수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고 노력에 따른 성과보상 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김태완 원장 : 울산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면서 인터넷 강의공개, 학부장 공채, 정원 감축 등 개방과 공유를 통한 학부교육 선진화로 대학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현재와 미래를 간략히 진단, 조망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김도연 위원장 : 여기 국과위에 와서도 비슷한 얘기를 자주 했는데, 사실 교육계가 그동안 많이 폐쇄적이었습니다. 담을 허물지 않으면 발전에 제약이 됩니다. 교육계가 훨씬 더 개방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자격증'이 필요한 게 현실인데, 그런 담을 헐어줘야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 사회가 지금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북한사회가 매우 폐쇄적이었고 반면에 남한사회는 개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개방을 하면 할수록 더 발전할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 카이스트사태의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아울러 카이스트가 직면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카이스트같은 대학들의 세계 일류를 향한 경쟁력 강화와 학생관리의 선진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연 위원장 : 카이스트에서 발생한 문제는 비단 카이스트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숙제이며 다른 대학들도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한 학교의 제도 탓이라기보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교내 구성원 간의 깊이 있는 이해와 대화를 통해 과학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잘 풀어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

“ 국내에 우수 과학기술인재 유치가 곤란한 이유는 신분상의 불안정이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미흡했고, 보상체계도 열악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우수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고 노력에 따른 성과보상 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





INterview

“위원장님께서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교육계나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너무 극렬하게 투쟁하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엄청납니다. 이러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초·중등교육을 통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한자의 사람 인(人)자를 살펴보면 한 사람은 기대고 한 사람은 뒤에서 받쳐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받쳐 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방법을 좀 더 교육시켜야 선진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각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 인재를 배출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학들은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제도를 보완해 대학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 명문대학과 경쟁하려면 내부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쟁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특별히 지원해주는 다이나믹한 체제가 돼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경쟁에서 뒤지더라도 부족한 학습을 채울 수 있는 따뜻한 보살핌과 교육여건의 개선 및 보완이 함께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세계의 유능한 학생들과 끊임없이 교류·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쟁이 좌절감과 스트레스의 요인이 아닌, 보다 큰 도전의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완 원장 : 평소 초·중등교육 이하의 업무는 일선교육청에 넘기고 중앙정부는 대학과 과학기술에 집중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정책을 잘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같은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김도연 위원장 : 과학기술분야를 살펴보면, 숫자로만 봐도 이공계 연구자 5만 명 가운데, 연구소 인력은 1만 명이고, 대부분은 대학에 몰려 있습니다. 이공계의 연구개발은 상대적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국가발전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계 인재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나마 의료분야에 몰려들거나 편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초·중등학교 시절에는 과학기술에 상당히 흥미를 가지다가, 고등학교 이상으로 진학하면서 학교 교육방식이나 사회분위기 탓인지 몰라도 과학기술계에 흥미를 잃고 인재가 떠나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다소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공계와 연구개발 분야에 대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투자하므로, 아마 조만간 다시 인재가 몰려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Interview

김태완 원장 : 위원장님께서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으신지요. 교육계나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연 위원장 :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선진국 문턱에 와있는데, 이를 넘어서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과학기술 발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갈등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너무 극렬하게 투쟁하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엄청납니다. 이러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초·중등교육을 통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한자의 사람 인(人)자를 살펴보면 한 사람은 기대고 한 사람은 뒤에서 받쳐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받쳐 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방법을 좀더 교육시켜야 선진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완 원장 : 자녀들이 다 장성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평소 가지고 계신 교육관, 교육철학은 무엇입니까.

김도연 위원장 : 저의 아버님도 교육계 출신인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교육계가 우리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리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점들을 교육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1952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과('74)와 한국과학원 재료공학과('76)를 졸업하고, 프랑스 블레즈-파스칼대학에서 재료공학을 전공, 재료공학박사학위('79)를 받았다. 프랑스 르노자동차 중앙연구소 연구원('76-'79)과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조교수('79-'82)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82-'08)를 지내면서 공과대학 학생담당 부학장('92-'94), 재료 미세조직 창의연구단 단장('97-'05) 공과대학 학장('05.9-'07.9) 등을 역임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08.3-'08.8),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09.12-'10.11), 울산대학교 총장('08.9-'11.2), 한국공학한림원 회장('11.1-'11.3) 등을 지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11.3)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 젊은공학인상('01), 과학기술훈장 진보장('01),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상('0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훌륭한 공대 교수상 연구상('04)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우리시대 기술혁명>, <나는 신기한 물질을 만들고 싶다>, <기후, 에너지 그리고 녹색이야기>, <새로운 대학을 말하다> 외 다수가 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의 확산, 추진과 전망

글_ 김윤정 |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인재기획단장

2009년 교육과정 총론 개정 후, 2010년은 창의·인성교육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의 학교현장에 창의성과 인성교육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치열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값비싼 사교육이 매서운 기세를 떨칠 때, 우리 학교 현장의 어느 곳에선가는 학생들 모두가 탐구실험을 하거나 주제중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고, 예술적 열정에 넘치는 끼 많은 친구들이 모여 춤과 노래에 몰입하는 사례들도 있어 왔다. 다만 이는 주입식 교육이 대세인 흐름 속에서 일종의 주변적 사례로 여겨져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으로 주목·권장 받으며,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 2010 창의·인성교육의 현장

정부가 창의·인성교육의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학교현장에 그 붐을 일으키고자 의욕적으로 달려 나간 순간, 마치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만 같은 현장의 투명스런 질문이 있었다.

“창의·인성교육이 뭔데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교육...”입니다.

답답함이 더해진 투명한 질문이 돌아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무조건 외우고 푸는 정답찾기식 교육을 탈피해서, 학생들이 일단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도록 하고), (선생님의 강의일변도만이 아닌) 모둠을 지어(협동학습) 탐구·실험하며, 팀 프로젝트도 하고, 서로 토론·실습·체험하면서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하는…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답답함에 불만까지 섞인 질문 아닌 지적들이 우수수 돌아온다.

“좋은 말인데요. 교과서 진도는 어찌고요… 수능공부 안 하고 성적 떨어지면 학부모들이 싫어합니다… 평가(제도)는 그대로인데, 수업만 바꾸기 힘들어요… 체험하러 나가다 사고 나면 어찌나요? 밖에 나가면 돈 들텐데 지원해 줍니까?”

“진도 20% 감축하는 교육과정 각론 개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블록타임제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실험·탐구·토론·체험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입에서는 그래서 입학사정관 제도가 중요한 겁니다. 입학사정관들이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진로와 관련한 학습활동을 종합적으로 볼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수행평가, 서술형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중앙과 시도교육청 지원도 늘려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의 교육기부를 적극 유도·활용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온갖 행정업무도 넘쳐나는데, 있는 것 하나도 안 없어지고 새로 생긴 그 많은 일들을 교사들이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

II.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이 창의·인성교육 성패의 관건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정책과 현장의 간극은 너무나 크고도 넓다. 한꺼번에 풀자니 한세월일 듯도 하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는 이 모든 사정을 감안하지도, 기다리지도 않

는다. 다만, 변화의 파고가 몰아치기 훨씬 이전부터 좋아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국가교육 전체가 어느 날 갑자기 기존의 틀을 훌쩍 뛰어 넘는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명감으로, 혹은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몰입하는 분들이 있어 희망과 긍정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는 새로운 호기심과 열정이 되고, 그 열정을 나누다 보면 창의가 생긴다. 이러한 창의는 현장의 전문성이 되어 아이들의 교육을 바꾸는 변화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에서, 창의·인성교육 현장포럼이 시작되었다.



“무조건 외우고 푸는 정답찾기식 교육을 탈피해서, 학생들이 일단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도록 하고), (선생님의 강의일변도만이 아닌) 모둠을 지어(협동학습) 탐구·실험하며, 팀 프로젝트도 하고, 서로 토론·실습·체험하면서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하는…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2010년 11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창의·인성교육 현장포럼을 시작해 10회를 앞두고 있다. 사회에는 수도 없이 많은 포럼들이 있고, 훌륭한 강의들도 많다. 창의·인성교육 현장포럼도 그 중의 하나이긴 하나, 학자나 전문가들의 일방적 강연 연찬만은 아니다. 이질적 분야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장의 교사들과 만나 새로운 내용과 경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제 체험(hands-on)을 해보는 포럼인 것이다. 사실 교육만큼 변화에 민감해야 하는 영역도 없다.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교사야말로 모든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호기심이 넘쳐야 한다. 창의·인성교육 현장포럼이 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휴일 이른 새벽부터 전국에서 집을 나서는 선생님들의 열정을 확인하고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어서일 것이다. 연극을 하는 이들과 몸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나누고, 자동차 디자이너에게 사물을 관찰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나름의 방법을 듣고 시도해 본다. 홀로그램을 통해 과학과 예술을 직접 접목시켜보기도 하고, 색다른 직업의 전문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소양을

쌓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아이들의 진로지도에 대입해본다. 이질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수업을 하며 무언가 답답했던 것들을 액션러닝을 하며 상호간 해소시켜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시도해봤으면 하는 의욕을 공유하고 돌아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 두 개의 포럼이란 것이 1만 천여개의 학교현장과 대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공간이며,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를 교육의 현장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시도와 참여가 점차 늘어난다면, 그 의욕이 작은 흙씨가 되어 어느 날 공교육에도 창의·인성교육의 꽃들이 만개할 날이 올 것이다. 다만 평가제도, 행정의 고도화(교사 잡무 경감), 과감한 교육투자 등의 노력이 끊임없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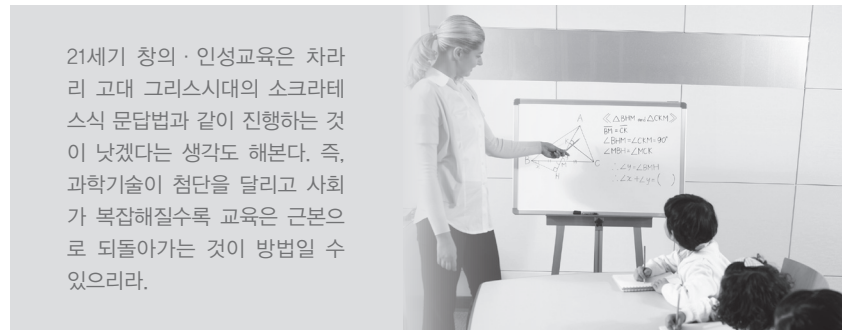
III. 학습자 중심(learner-based)의 교육과정 강화 통해 창의·인성교육 확산

위키피디아에 400만개 이상의 지식과 유튜브에 610만개 이상의 비디오들, 6천만개 이상의 블로그에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는 요즘, 궁금한 것들은 컴퓨터에만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해소된다. 따라서 개인의 호기심을 무시한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지식전달의 필요성이 갈수록 의문시될 것이다. 결국 교육은 컴퓨터가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의 종합적 사고(reasoning)와 감성적(emotional) 능력, 창의성을 키우는 근본적인(fundermental) 방향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아는 문제해결(problem solving) 능력을 키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르치는 이의 일방적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배우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학습의 목표를 세우고, 그에 필요한 지식(주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습득, 탐구, 사고해 가는 과정으로 교육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자연스럽게 융합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주변의 어떤 자연현상이

나 사회현상에 대한 규명도 과목의 구분에 따라 뚝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일 새로이 생기는 지식정보들은 주요 과목의 틀 내에서 습득되기에는 적시성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불충분하다. 따라서 21세기 창의·인성교육은 차라리 고대 그리스시대의 소크라테스식 문답법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즉, 과학기술이 첨단을 달리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교육은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방법일 수 있으리라.

다만 아직까지 국가중심의 공통교육과정인 강한 우리의 경우, 교육과정의 적시 변화가 어렵다면, 새로 생긴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런 창의·인성교육의 선도적 과정으로써 최대한 활용해 융합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해 보인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습자 중심, 주제중심의 융합과정, 그리고 체험 위주의 공동체활동으로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창의·인성교육 정착의 바로미터로 삼을 수도 있지 않나 여겨진다.



21세기 창의·인성교육은 차라리 고대 그리스시대의 소크라테스식 문답법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즉, 과학기술이 첨단을 달리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교육은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방법일 수 있으리라.

IV.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인성교육으로 기대되는 교사의 역할 변화

미래사회에서는 웹이 교과서를, 컴퓨터나 로봇이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예상되면서 학교나 교사는 뭘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렇다면 컴퓨터는 펜이 할 수 없는 것에서 그 효용의 극대화를 가져온 것처럼, 학교와 교사는 웹상의 가상현실에서 도저히 충족되지 못하는 쪽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관심분야의 지식과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탐구해 나갈지, 이 과정에서 어떤 방법(도구)들을 사용할지 등에 대한 컨설턴트이자 가이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미래연구소(IEA)에서는 10년 후의 교사를 소셜 디자인으로 보고 있다. 지식이란 콘텐츠는 조만간 값싸고(유엔 미래보고서에서는 지적 재산권마저도 소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디에서나 유용하게 되므로 교사는 학습공동체에서의 작곡자(orchestrator)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내다 보고 있다.

한편, MIT대학과 같은 우수 대학들에서 교수들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선배 학습자로서 조언을 해주고 부딪친 난관을 극복할 의욕을 되찾게 도와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하듯이, 교사도 정체성이나 행동 양식의 혼란을 겪거나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학생들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가이드, 카운슬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질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색다른 기회와 역할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인 바, 컴퓨터가 충족시켜 주기 어려운 공동체생활이나 체험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전문 개발자로서의 기회도 새롭게 많아질 것이라는(2020 미래교육보고서) 예측도 있다.

V. 창의·인성교육의 선봉, 1000개의 교과연구회와 100개의 창의·인성모델 학교

우리 아이들이 적시(Just in time)학습을 하고, 현실에 토대한 주제중심의 다양한 탐구와 심화학습을 하도록 이끌기 위해 교사도 세상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탐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사 역시 연구자(researcher)로서 여러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교사 간, 혹은 교사와 전문가 간 협력(collaboration)을 통해 첨단 교수방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융합 교육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창의·인성교육은 저명한 학자에 의해 주창·주도 되는 탑 다운(top-down)의 교육이 아니다. 창의·인성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집단지성의 학습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의 교사 연구모임을 통해 연구·토론하고 이를 수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학습자의 유형별, 맞춤형 지도방식을 서로 나눔으로써 교육 디자이너로서, 카운슬러로서의 노하우를 두텁게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창의·인성교사 연구회는 창의·인성교육의 확산뿐 아니라 침체된 우리 공교육에 새바람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교사의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들에게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며, 좀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한 교사들에게는 최근 도입·시행된 교사 안식년 제도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의 협력은 연구모임에서 뿐 아니라, 교실 안 협력(collaboration), 즉 팀티칭(team-teaching)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주제별 접근이 용이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에게만 모둠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협업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팀티칭 연구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한편, 창의·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전반의 운영이나 행정의 노하우(교사 직무경감 등 교사지원 방안),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등 학교 차원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발굴되고 확산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은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모든 생각과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수업에서만 아니라 학교 내외의 모든 활동들이 그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별 학교마다 특색 있는 입학식과 졸업식, 수

학여행 등이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나아가 지역의 기업체나 대학과의 협력방안(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진로, 동아리, 봉사활동 등)과 학부모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수많은 전문가들을 교실로 끌어들이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들은 상호 벤치마킹함으로써 학교를 세상으로 확장하고, 생생한 경험들을 교실로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장이 학교구성원과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창의·인성모델학교는 학교 차원의 창의·인성교육의 전형을 마련하고 학교 간 파트너십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처음 시도되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교사와 교장 연수들이 있었으나, 주입식 교육과 마찬가지로 연수기관에서의 강의 위주였다. 교사연수는 상호작용과 체험으로 바뀌는 것이 창의·인성교육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며, 학교장이나 그룹연수 역시 시스템 전반을 보고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현장연수가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가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school-to-school) 연수의 토대를 모델학교를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초기 모델학교들이 창의·인성의 완벽한 모형을 구현하기엔 부족한 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상호간의 질의응답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보여주는 학교나 찾아온 교육자들에게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과학이나 언어, 스포츠와 같은 분야들의 경우, 다양한 학교 파트너십으로 전문인(specialist expertise)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이 보다 월등한 성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나아가 창의·인성모델학교 사업이 학교연수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내 학교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영국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는 한 학교 내의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같은 지역사회 내 여러 학교들 간 로컬 파트너십 구축을 권장하고 있다(Every school working in partnership: because no school can do it alone). 따라서 과학이나 언어, 스포츠와 같은 분야들의 경우, 다양한 학교 파트너십으로 전문인(specialist expertise)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이 보다 월등한 성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학교급 간 협력-예컨대 초등 6학년과 중1, 고등학교와 지역대학 간 공동 커리큘럼 등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발달단계와 영역별로 차이를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을 학교급 간 협력(co-curriculum이나 co-work)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심화된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VI. 창의·인성교육의 완성을 위해 평가의 질적 전환과 고도화 필요

얼마 전 뉴욕교육청을 다녀왔다.

세계경제의 수도라는 뉴욕에서 교육의 화두는 Leadership, Empowerment(권한이양-자율), Accountability(책무)였다. 이를 위해 평가의 고도화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이 정립한 평가방법은 결국 우리의 창의·인성교육이 목표로 표방하는 바와 비슷한, 학생들의 분석력, 종합능력, (스스로의) 평가능력, 사유(reasoning)와 문제해결능력의 달성 정도를 측정함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능력들을 평가하기 위해 중요한 파일럿 과제로 설정한 것이 바로 수행평가(performance-based assessment)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커리큘럼과 공통핵심기준을 대비·조정·분석해 피드백하게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평가들은 학생들의 작업에 대해 정보를 주고, 어떻게 활용해 차별적으로 지도할지를 돕기 위함이다. 따라서 수행평가는 과업수행과 글쓰기에 대해 크게 강조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중 기간평가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DOK(Depth of Knowledge Levels) 방식의 시도로 공통 핵심기준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측정방식을 도입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의 단순 지식 암기능력의 평가만이 아니라, 응용능력이나 전략적 사고, 확장된 사고능력 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실 호기심, 유창성, 독창성, 개방성, 감수성, 비판적 사고, 확장·수렴적 사고, 정직과 약속, 책임과 배려와 용기 등을 강조하는 창의·인성교육이 수업방법에서만 강조되어서는 현실에서 정착되고 확산되기 어렵다. 창의·인성수업이 학교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마무리 단계에서도 보다 정성적이고 입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의 고도화, 체계화가 필요하다. 창의·인성교육이 총론연구부터 영역별 수업모델, 학교모델, 교사연구회와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시스템 마련 등 비교적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단발성 시도로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나 창의·인성교육의 견고한 정착을 위해서는 대입에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방안 확보) 등 질적 발전과 학교에서의 평가 고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단위학교 차원의 연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학교들에게 실제상황평가, 수행평가, 서술형평가, 포트폴리오, 연구보고서, 자기평가, 동료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활용하라고 권고만 해서는 학교들이 난감해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창의·인성 평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학교들의 상황에 따른 활용방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VII. 유아 무상교육, 창의·인성교육 강화 계기 되어야

우리의 공교육은 전체 의무교육의 대상 연령을 포함하고 있는 초·중·고 12년에 집중적으로 치중해왔다. 이는 교육의 본질적 영역인 교육과정과 교수법에 대해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나마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던 로버트 풀컴의 「내가 정말 알아

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의 관점으로 볼 때도, 또 창의성·인성교육이 가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유아단계의 창의·인성교육에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에서는 만5세 무상교육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재원의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유아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질적 전환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필자가 컬럼비아대학에서 만난 Henry Ginsberg 교수가 5세와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관찰과 면접법(clinical interview)은 유아단계의 우리 창의·인성교육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여겨졌다. 긴스버그 교수는 아이들의 놀이와 각종 활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아이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깊이 이해하고(이를 통해 교사가 학생에 대한 이론을 가진 후), 아이와의 문답식 대화를 통해 아이가 스스로 사고하고 자신만의 다양한 논리와 학습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물론 이 때도 중요한 것은 역시 교사이다. 교사가 인내와 전문성을 가지고 유아 개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유아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 접근방식을 통해 아이의 창의·인성을 자연스럽게 발현·구축하도록 이끄는 것이 유아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창의·인성교육의 견고한 정착을 위해서는 대입에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방안 확보) 등 질적 발전과 학교에서의 평가 고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아일 때는 세상의 모든 것에 호기심이 있다. 그러므로 아이가 싫어하는 분야가 태생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틀에 박힌 교육과 획일적인 평가 속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싫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과 결합해야 하

는 이유가 되기도 하다. 예술은 배움에 대한 몰입을 촉진시켜주고,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다. 이는 유아 창의·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일 것이다. 유아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국가의 지원이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명목 하에 자칫 획일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는 쪽으로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학습 모델 등 커리큘럼 개발과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신경 써야 할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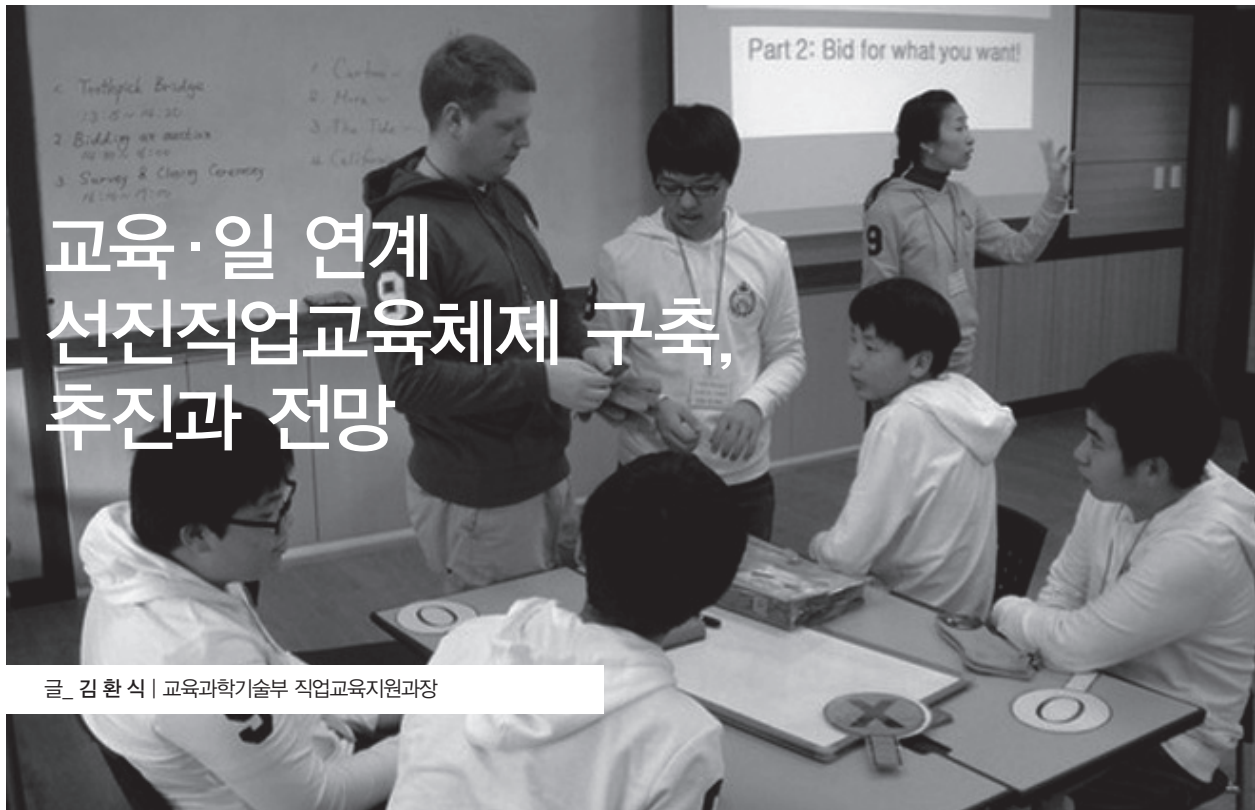
VIII. 대학, 연구성과에 대한 집착만이 아닌 창의·인성교육의 산실 돼야

최근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다. 이로 인해 카이스트 총장의 갖가지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상대평가에 의한 소위 징벌적 등록금 징수로 학생들을 지나치게 경쟁으로 내몰았다는 비판과 상담 등 학생들의 대학생활 지원이 빈약했다는 지적 등 나름 대학이 그 운영에 있어 참고하고 반성을 검토할 만한 내용도 상당했다. 그러나 필자는 보다 근본적인 보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MIT 스투어트 슈밀 입학처장이 올 초 내한했을 때 MIT의 입학사정관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바가 바로 '재미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라는 것이다. 엄청난 학업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강화된 상담시스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상대평가와 징벌적 등록금 징수 연계를 폐지해 지나친 학업 외 부담을 덜어주는 개선책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스스로가 호기심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자신의 학업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일 것이다. 이럴 때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배제될 수 있으며, 오히려 대학생들의 창의적 성취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단계에서도 창의·인성교육이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사고력과 대안제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는 분야를 불문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양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이 곧 현재의 문제해결과 연계될 때 보다 몰입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 사실 대학만큼 창의·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좋은 곳도 없다. 선진국의 대학들이 학내 교육과정위원회나 센터 등을 통해 core curriculum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중심대학이나 학부중심대학 할 것 없이 학부의 상당 기간을 전공에 상관없이 인문 고전 읽기와 예술적 소양을 기르는 커리큘럼으로 핵심 교육과정(필수 교양 강좌)을 짜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수행하는 각종 프로젝트들이 지역사회나 주변의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것이 진정한 산학협력이지 않은가-방안을 찾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목표의식(mission-oriented)과 도전정신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좌절하기보다는 강한 책무성과 성취감으로 더 큰 도전을 하게 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학에서도 연구성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러한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 개선과 다양한 수행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부터 대학 단계까지 관통될 수 있는 창의·인성교육을 통해 예상을 뛰어넘어 급변하는 글로벌사회와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는 핵심역량교육의 토대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일 연계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 추진과 전망

글_ 김 환 식 |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장

I.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의 필요성

직업교육은 직업세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세계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역량을 직업교육에서는 직무수행역량(competency)이라 한다. 그래서 직업교육은 직무수행역량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동시에 직업교육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직업교육의 수준(level)이 중등단계이건, 그 이후 단계이건 관계없이 직업교육은 원칙적으로 취업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은 이후 노동시장이 아닌 상급교육기관에서 계속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개의 직업교육기관에서 직접 고민하여 교육을 제공할 필요는 크지 않다. 이는 학습자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¹⁾. 정리하면, 직업교육은 본질상 취업을 위해 요구되는 직무수행역량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1)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충실히 공부하고, 선택교육과정에서의 보통교과를 제대로 이수했다면 자연스럽게 그 학생은 평생학습역량이 생기게 될 것이다. 국가가 학업성취도평가를 보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중등직업교육의 책임은 학생들에게 평생학습역량의 토대 위에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직무수행역량은 직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일반교육에서 길러져야 하는 각종 학습과 관련된 역량(capability)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직무란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산업과 관련이 깊다. 직무가 기업이나 산업과 관련된다는 것은 직무수행역량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즉, 기업과 산업과의 협력이나 연계(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또는 개개의 기관차원이건, 전체 차원이건)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직업교육은 산학협력교육이 근본적이다. 위의 2가지 정의를 토대로 직업교육을 종합 정의하면, 직업교육은 산학협력의 기반 위에 취업에 필요한 직무수행역량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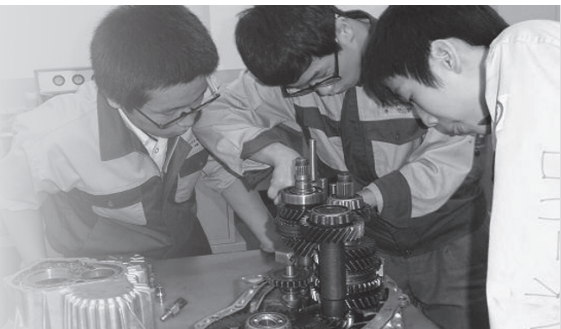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장 대표적인 중등직업교육기관이었던 전문계고(구 실업계고)는 취업보다 진학을 더 중시하였다. 1999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계고는 더 이상 종국교육(terminal education)기관이 아니라, 직업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직업교육의 완성(initial education 단계에서의)은 전문대학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문민정부 교육개혁방안의 철학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 이후에도 약화된 전문계고의 위상을 제고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을 수월하게 하는 제도들이 전문계고에 도입되었다. 현장실습도 여러 이유를 들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전문계고가 취업보다 진학을 중시하게 된 이유는 교육체제의 요인(要因)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인도 존재한다. 또한, 도제제도의 뿌리 깊은 전통과 역사가 산업인력양성시스템에 영향을 준 서구와는 다르게 도제제도의 전통이 미약하고 국가가 인력양성체제를 견인해 온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의 발전 역사와 문화 역시 직업교육에서 기업이나 사업주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계고의 취업기능의 약화는 교육체제 뿐만 아니라 사

회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생산인력의 부족과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mismatch) 문제(예: 고학력 실업자, 청년실업 등)를 초래하고 있다. 2016~17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일은 국가 차원에서 중차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10년 6월 29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모든 전문계고는 특성화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5년 2월까지 특성화고는 계속 지정여부가 교육감에 의해 결정되도록 되었다. 법령상 특성화고라 함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이다. 즉, 특성화고는 법령에 의거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정의되었고, 2015년 2월까지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다면 특성화고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특성화고를 법령상 취지에 맞게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진학 강조 직업교육체제'가 아닌 '취업 강조 직업교육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직업교육은 직업세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세계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 방향

직업교육체제의 선진화는 먼저 2가지를 핵심으로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본래의 직업교육기관 설립목적에 맞게 고교 직업교육에서 취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특성화고 교육에서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후술하지만 정부가 마이스터고를 100% 취업하는 취업명품학교로 육성하고, 특성화고를 취업중시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이들 학교를 산업맞춤형 또는 산학협력기반형으로 바꾸어나가는 노력만으로 선진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선진국처럼 산업계가 중등단계 인력의 양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일자리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에게 제공하는 노력이 갖춰져야만 한다. 교육체제를 취업 중심으로 바꾸어나가는 노력이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에 있어 필요조건이라면, 산업계의 참여를 통한 산학협력체제 구축은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의 충분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직업교육체제는 2가지 이외에도 또 다른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바로 선취업 이후 계속교육이 가능한 체제, 흔히 '선취업 후진학'으로 일컬어지는 체제가 구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무분별한 대학진학 수요를 극복하고, 먼저 취업하고, 취업한 이후 필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학력이 갖는 무게 때문이다.

정리하면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 방향은 크게 3가지이다.

- ▶ 고교 직업교육에서 취업을 중시
- ▶ 산학협력교육 활성화
- ▶ 선취업 이후 계속교육 기회 확대

Ⅲ. 주요 정책방안

1. 고교 직업교육에서 취업을 중시

먼저, 고교 직업교육을 취업 우선 교육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이다. 2000년대 후반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낮은 상태였고, 전문계고 취업률 역시 20%미만으로 까지 추락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로서 도입된 것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이스터고 정책이다. 2011년 현재 21개교가 개교되어 학교 운영 2년째에 있고, 7개교가 2012년 개교를 목표로 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취업률 100%를 목표로 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 교육과정을 전면 자율화하여 산업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방과 후나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기업 맞춤형 과정이나 기업 맞춤형 반(class)을 운영하도록 하며, 산업체 종사자가 학교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마이스터 교원을 확충하고, 나아가 2010년 말 50%인 기업과의 채용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2011년 80%, 2012년 100%)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에 따라 마이스터고는 당초 학교 도입 목적이었던 중등직업교육의 신뢰회복과 취업명품학교라는 명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고, 나아가 학자들이 이론상으로 주장하던 다양한 산학협력활동을 실제로 구현해 나가고 있다²⁾.

특성화고 정책은 마이스터고의 사례를 확산하여 기존 특성화고의 교육체제를 점차적으로 취업중시 방향으로 개편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특성화고 정책 방향은 2010년 5월 12일 발표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에서 제시된 바 있다. 핵심내용은 바로 선취업-후진학 체제 구축과 특성화고의 소수 정예화이다. 전국에 산재한 특성화고 691개교를 2015년까지 특성화고 400개교와 마이스터고 50개교(2012년까지 지정 완료)로 줄여나가는 체제 개편 정책과 선취업-후진학을 위한 재직자특별전형제도의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이러한 소수정예화는 모든 특성화고를 취업을 중시하는

2)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마이스터고 학생을 채용하기로 약정한 것(삼성전자는 이미 113명을 선발했음), 현대하이닉스반도체가 28억원 상당의 반도체 실습장비 시설을 충북반도체고에 기증한 것, 충북반도체고에 현대하이닉스반이 만들어지고, 구미전자공고나 동아마이스터고에 여러 기업체 맞춤형반이 만들어진 것, 여러 기업에서 마이스터 교원들에게 산업체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것, 기업의 임직원이 마이스터고에 와서 각종 수업을 지원하거나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참여하는 것 등 산학협력교육 관련 활동이 매우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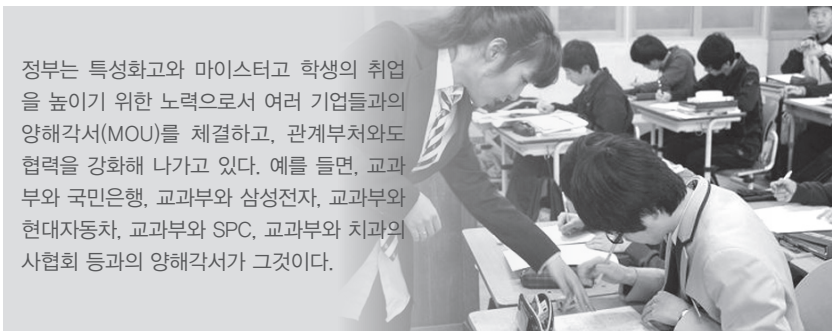
특성화고로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리 적정 규모로 중등직업교육시장을 조정해야 미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농·공·상업 등 전문계 교과 교육과정 역시 금년도 2009 교육과정 각론을 개발하면서 직무수행역량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2개의 정부계획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 하나는 2010년 9월 16일 발표한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방안’이다. 동 방안에서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정책을 포함하여, 체제개편 지원, 현장실습 강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및 전문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0년 5월에 발표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이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특성화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 9월 발표는 정책방향 구현에 소요되는 재정(財政)이라는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발표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이다. 이 방안은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과 관련된 각종 정책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중 취업과 관련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2012년도에는 취업계약입학제도를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취업계약입학제도는 채용협약이 늦어지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재학 중에 충분히 배울 수 없다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취업계약입학제도와 함께 도입될 ‘취업인턴제’도 기본방향은

유사하다. 이들 제도를 즉시 도입하지 않고 시범 도입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계가 인력양성에 참여하는 문화와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세액 공제와 산업기능요원 추천제 확대 등)를 제도화함으로써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하나는 ‘과정형(課程型) 공인민간자격 제도의 도입이다. 과정형 자격은 기존 자격제도의 특징인 ‘검정형(檢定型)’에 대칭되는 용어이며, 선진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격제도이다. 과정형 공인민간자격제도는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자격취득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과정을 수강하는 이유가 지식습득을 넘어 특정 직업과 연결됨을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여러 기업들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계부처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교과부와 국민은행³⁾, 교과부와 삼성전자⁴⁾, 교과부와 현대자동차⁵⁾, 교과부와 SPC⁶⁾, 교과부와 치과의사협회⁷⁾ 등과의 양해각서가 그것이다.



정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여러 기업들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계부처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교과부와 국민은행, 교과부와 삼성전자, 교과부와 현대자동차, 교과부와 SPC, 교과부와 치과의사협회 등과의 양해각서가 그것이다.

3) 국민은행은 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이미 8명 선발하였으며, 이는 IMF 이후 국민은행에서 특성화고 학생을 처음으로 선발한 것임), ‘Good-Job’ 사이트를 개발하여 특성화고 학생 전용 취업지원 통로를 마련해주시기로 한 바 있다.
 4) 삼성전자는 교과부와 MOU를 체결, 마이스터고 학생을 매년 100~200명 선발하기로 하였고, 이미 현 2학년생 113명을 선발하여 장학금도 지급하고, 나아가 방과후나 방학 중에 특별교육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5) 현대자동차는 삼성전자와 유사한 형태로써 마이스터고 학생을 매년 100명씩, 10년간 총 1,000명을 채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6) SPC는 제과제빵회사로서(파리 바게트, 던킨 도넛 등의 모회사) 특성화고와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한 학생을 우선 채용하며, 나아가 입사 1년 이후부터는 SPC 사내대학에 입학시켜 전문대학 과정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으며, 현재 더 광범위한 추가 협력을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7) 치과의사협회는 치과조무사양성과정을 일부 특성화고와 협력하여 개설하고, 과정개발과 실험실습시설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치과조무사로서 치과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2. 산학협력교육의 활성화

두 번째 방향은 산학협력교육의 활성화이다. 이미 마이스티고에서 제대로 된 산학협력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특성화고에서도 산학협력이 본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학협력은 개별 학교와 개별 기업과의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1:1 협력으로, 일부 학교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진 결과이다. 상대적으로 사업주 단체나 산업별·직종별 협회 등과의 협력은 미약하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산업계나 기업은 인력양성에 있어 학교와의 협력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이스티고는 지금보다 더욱 산업별·직종별 협회(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인 SC 포함)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수요 맞춤형으로, 현장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과 그 업무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발해나가고 있으며, 특성화고 역시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역량 개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2009 교육과정 각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산업계 대표로서 역할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미 대한상공회의소와는 2011년 5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고, 다채로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⁸⁾. 금번 MOU 중에서 우선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산업체 우수강사(총 330명, 100억 원 투자)를 선정,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원하는 '산업체 우수 강사 인력풀 구축 및 관리 사업'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티고에 기술명장, 4050 베이비부머 세대의 산업체 경력 퇴직자 등을 산업

체 우수 강사로 채용하는 사업으로 이미 실행 중에 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는 각 학교의 채용 수요신청을 받아 대·중소기업 회원사, 금융권, 소속 인력개발원 등을 통해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으며, 5월중 학교에 2~3배의 적정 인력을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만간 현장직업교육의 실행을 주관하는 기구로 대한상공회의소에 관련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직업교육강화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 추진단을 통해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하고, 산업계가 인력양성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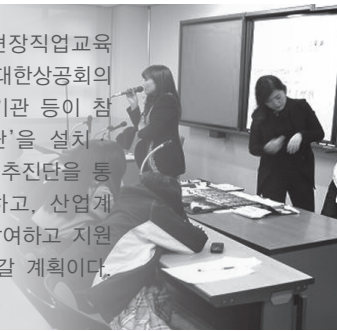
다음은 기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앞으로 마이스티고와 특성화고 학생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청년 채용 시 1,500만원보다 500만원 인상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법령 개정사항). 기업의 병역미필자 채용기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선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도 2015년까지 한시적 연장이 이뤄졌으며, 마이스티고·특성화고 졸업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자격도 개선하는 중에 있다. 마이스티고·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목표제(예: 10%)를 공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기관의 '기능인재추천채용제'를 특성화고·마이스티고 졸업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금의 사내대학이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

8) 대한상공회의소와 체결된 양해각서의 상호협력 분야는 아래와 같다.

1. 특성화고 및 마이스티고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의 우수한 기술과 직무역량을 소개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산업체 우수강사 발굴 및 인력풀 운영 관리
2. 취업인턴제 및 취업계약입학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체 및 학교 발굴,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학생선발 등 산학협력 모델 개발 및 운영
3. 특성화고 및 마이스티고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 실시
4. 산업계 맞춤형 평가·인증된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수여하는 민간자격과 자격 취득기준 개발
5. 기술인력의 효과적 양성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티고와 산업체 간 상호 요구되는 교육분야의 발굴과 인력 수급의 매칭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특성화고 및 마이스티고 학생들의 후진학 지원, 기업체 기술직 근로자의 계속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기술 중심 사이버대학교 개설 및 운영 지원
7. 마이스티고 졸업생이 취업후 생애과정에서 진정한 기술명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경력개발 과정개발 및 운영, 기술명장 인증제도 구축 및 운영

여,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사내대학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업자 대학 설립도 추진된다. 이러한 방안들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정부만이 아닌 민관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야만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미 언급한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가 공동으로 '직업교육강화추진단'을 만들어 산업계 주도의 직업교육을 관리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만간 현장직업교육의 실행을 주관하는 기구로 대한상공회의소에 관련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직업교육강화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 추진단을 통해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하고, 산업계가 인력양성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3. 선취업 이후 계속교육 기회 확대

다음은 후진학 체제 구축과 관련된 정책이다.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 개선을 위해 ①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활성화, ②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취업지원, ③ 재직자 특별전

형 도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내대학과 계약학과는 평생교육법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이 참여하는 고등교육으로서, 활성화를 위해 취업과 동시에 입학할 수 있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이 직원을 채용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 진학하도록 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 많은 근로자(특히 대기업과 수직적 계열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들 제도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내대학 입학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전에 지원받던 각종 급여가 중단되어 취업보다 대학 진학이나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진학 제도인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 역시 거점 국립대 및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서 3년간 기업체에서 근무하게 되면 이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대학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동시에 그 동안 특성화고 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충에 역할을 수행해 온 '동일계 특별전형 제도'는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의 활성화와 연계되어 축소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

〈표 1〉 현 정부의 핵심 중등단계 직업교육 선진화방안과 그 의미

방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방안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
	21개 마이스터고 개교('10.3)	고용전략회의('10.5.12)	국민경제대책회의('10.9.1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10.1.19)
의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선진화방안 제시 - 선취업·후진학체제 - 체제 개편 등	중등직업교육 선진화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산업계가 인력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 마련

IV. 전망

선진직업교육체제는 구축되어져야 한다. 마이스터(Meister) 고등학교의 육성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10.5.12),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방안」('10.9.16), 그리고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11.1.19) 등은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현재 692개인 특성화고가 '15년 마

이스터고 50개교, 특성화고 350개교로 정예화되고, 이들 학교가 교육과 일을 연계하는 취업중심학교로 탈바꿈될 것이다. 즉, 한동안 진학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중등직업교육이 취업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교와 산업계 협력이 활성화되고, 산업계의 책무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과거 70~80년대 고교직업교육 정책과의 근본적 차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즉, initial education 이후) 계속교육(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또는 further education)을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존재하느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직업교육체제의 구축 방향 중의 하나로 후진학 체제 구축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는 특성화고 졸업생이라고 할지라도 계속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능력있는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는 각종 후진학 기회가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692개인 특성화고가 '15년 마이스터고 50개교, 특성화고 350개교로 정예화되고, 이들 학교가 교육과 일을 연계하는 취업중심학교로 탈바꿈될 것이다. 즉, 한동안 진학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중등직업교육이 취업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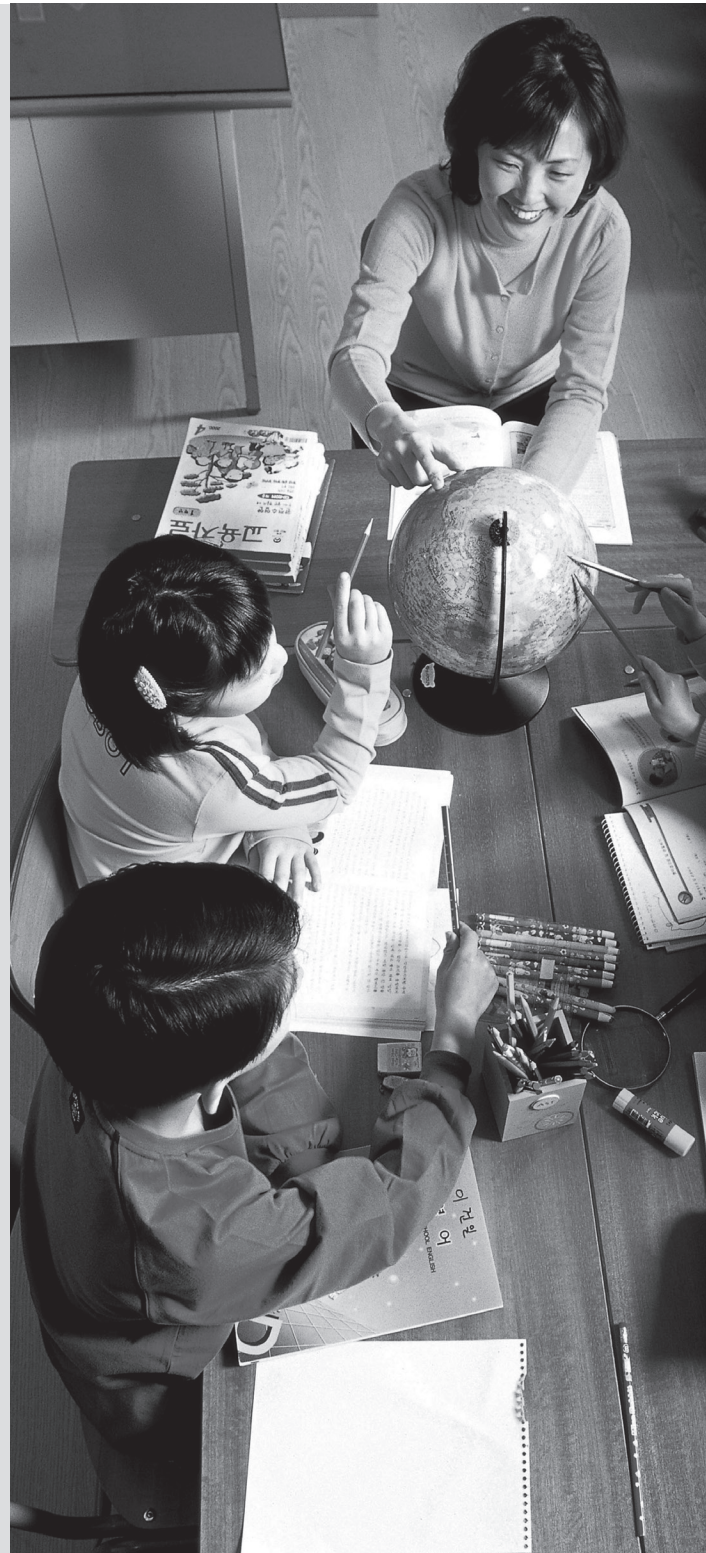
Wee 프로젝트 추진과 전망

글_ 최 상 근 |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 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 소장

I. Wee 프로젝트 추진배경

2000년대 들어서, 가족적 위기(빈곤, 부모의 이혼, 다문화가정 등), 교육적 위기(학습부진, 학업중단 등), 개인적 위기(범죄, 가출, 폭력, 흡연 등)에 처한 학생이 증가하였다. 아동·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은 만성적·비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처럼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들을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선도 및 치유활동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이 선정되었으며(2008년 3월), 이를 계기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Wee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2008년 10월). 이 Wee 프로젝트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다중의 촘촘하고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학교부적응 해소 및 인적자원의 유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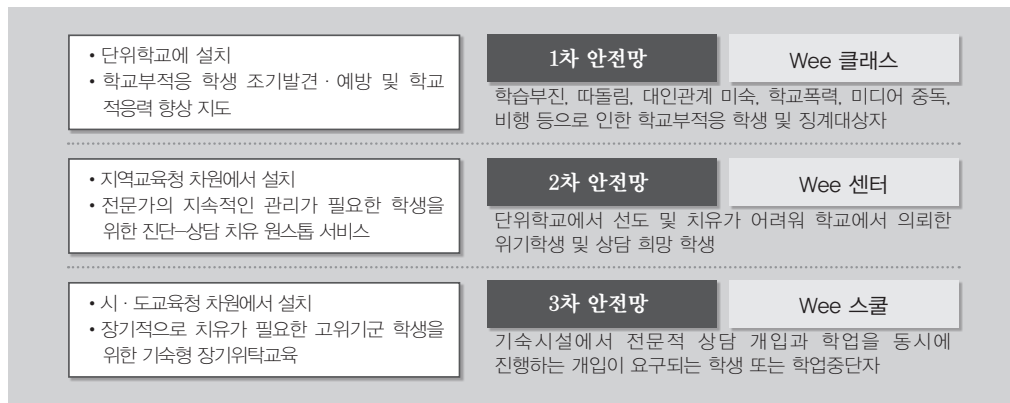
II. Wee 프로젝트의 개념 및 추진체계

1. Wee 프로젝트의 개념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감성)”의 이니셜이며, 여기에 하트(♥)를 접목시킨 브랜드 Wee이다. Wee 마크의 둥근 원은 학교를, ♥는 사랑의 서비스를, Wee는 우리들의 감성공간을 의미한다. 어른들에게는 나(I)와 너(you)속에 우리(we)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하고, 학생에게는 감성과 사랑이 녹아있는 Wee 공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내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Wee 프로젝트의 주 대상은 위기 학생, 보조대상은 일반 학생으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 안전망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 학생생활 지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Wee 프로젝트는 정서불안, 폭력, 학교부적응, 일탈행동 등 위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망(Safe-net) 구축사업을 일컫는다.

2. Wee 프로젝트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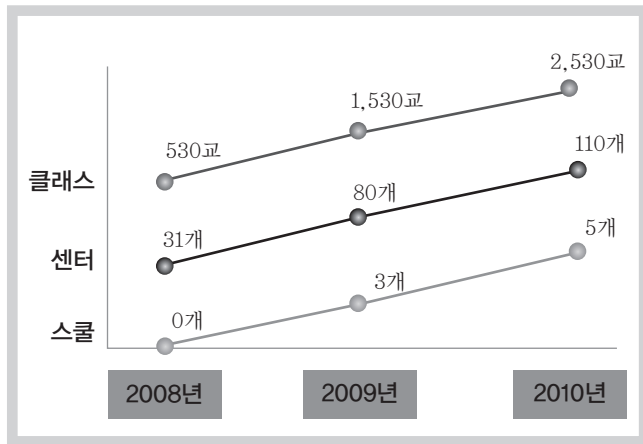
Wee 프로젝트는 단위학교에 Wee 클래스, 교육지원청에 Wee 센터, 시도교육청에 Wee 스쿨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간에 상호 연계된 촘촘한 학교안전망 시스템이다. Wee 프로젝트의 정책 초기에는 위기학생을 주 대상으로 Wee 센터 중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면, 현재는 단위학교 내에서 일반학생까지의 지원이 확대·요청되면서 Wee 클래스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림 1] Wee프로젝트의 추진체계

III. Wee 프로젝트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Wee 프로젝트는 2008년 Wee 클래스 530개교, Wee 센터 31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Wee 클래스 2,530개교(총 11,627개교 중 22% 배치), Wee 센터 110개소(총 178개청 중 62% 배치), Wee 스쿨 5개(이중에서 2개교는 준비 중)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림 2] Wee프로젝트 운영현황

Wee프로젝트는 학교현장에서 발생·증가하고 있는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라 출발한 Wee사업은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운영이라는 초단기간에 걸친 준비과정을 통해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개하는 정책사업으로서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장기성을 가질 수 없는 태생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Wee 프로젝트 사업 역시 고스란히 그로인한 문제를 떠안고 있다.

즉, Wee프로젝트 사업은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적 기반이 없고, 따라서 그에 관한 예

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Wee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정규직 인력인 전문상담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90%가 넘는 비정규직 인력들이 고용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사기저하와 이직 및 이동이 심각한 문제이다.

Wee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예산의 확보도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당장 2012년에 110개 Wee센터 종사자 500여명, 2,530개 Wee클래스 종사자 2,000여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 문제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법적 근거 미비로 시도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확보, 편성하도록 주문하기도 쉽지 않다.

Wee 프로젝트는 정책 추진 초기단계부터 갖고 있던 법적 기반의 부재, 불안정한 근무환경, 비정규직 인력의 과다 활용 및 인력 부족, 과중한 업무와 예산 미확보 등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에서 시도 정책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과도기를 맞고 있다.

IV. 발전방향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운영되었지만, Wee 프로젝트는 그 목적하는 바대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Wee클래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무단결석률, 학업중단률이 감소하였다.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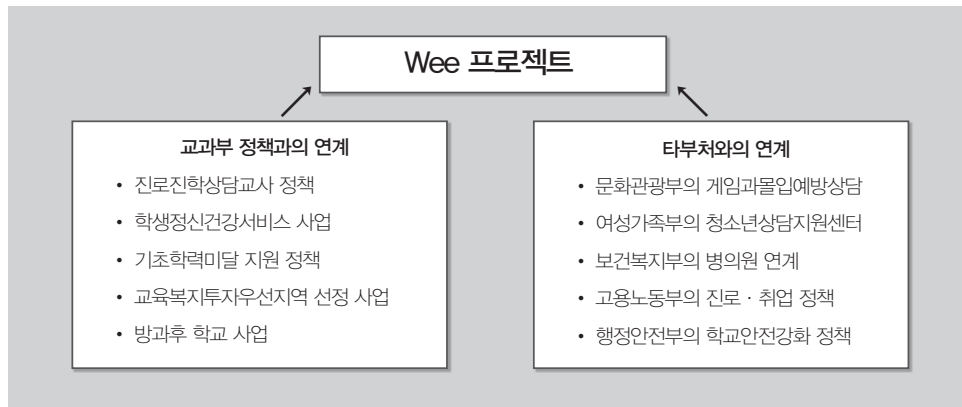


생들이 Wee센터와 Wee클래스를 활용해본 결과, '미래의 목표 발견', '선생님·부모님·친구 이해', '자신의 소중함 이해'등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성과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증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Wee프로젝트 추진 및 운영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Wee 프로젝트의 정책적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Wee프로젝트 운영기구를 법정 기구화하고, 정규직 인적자원을 증원 배치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제도화가 뒷따라야 된다.

이와 함께 학교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전략이 모색·추진되어야 한다. Wee 클래스와 센터 담당자를 위한 맞춤형 연수와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 사례회의, 자문 및 슈퍼비전을 상설화하여 상담사례에 대한 가장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 문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Wee프로젝트는 보다 많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즉,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의 다른 정책사업들과 연계·협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타부처의 정책사업들을 연계 또는 통합하여 운영해줄 것을 요청받고 있고 있다. Wee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히 해나가면서, 이들 정책사업 및 부처 요구와의 연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3] Wee프로젝트 사업과 유관 정책과의 연계체계

“Wee 프로젝트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다중의 촘촘하고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학교부적응 해소 및 인적자원의 유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6회 한국교육개발원 · 중앙일보 교육포럼」 지상중계

‘한국 대학교육의 현주소와 교육의 질 제고방안’

글_ 김민상 | 중앙일보 기자

대학생 10명 가운데 8명은 수업 내용이나 과제에 대해 교수와 자주 의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거나 교수와 의사소통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4년제 대학생 2,019명을 상대로 학습과정을 조사한 결과다. 4년제 대학이 200개에 달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했지만, 교육의 질은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KAIST 학생 자살 사태를 계기로 대학교육의 본질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과 중앙일보는 지난 5월 3일 ‘한국 대학교육의 현주소와 교육의 질 제고방안’을 주제로 「제6회 한국교육개발원 · 중앙일보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이 사회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교수 승진심사에 논문실적은 들어가지만 학생을 잘 가르쳤는지는 반영하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한동대학교 총장

□ 토론 참가자(가나다 순) □

김영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한동대학교 총장

김영배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김태완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사회)

송승철 :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회장 · 한림대학교 교수

안재환 : 아주대학교 총장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미숙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

김태완(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사회) : 대학교육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대학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에서 '정말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좀더 잘 가르치는 대학이 될 수 있을까'하는 문제가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변화의 배경과 그런 환경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길(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한동대학교 총장) : 대학의 3대 기능이 있다면 교육 · 연구 · 사회봉사(사회기여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60년 이전에는 거의 없었고 60년대에 들어와서 산업화시대 인력을 키워왔습니다. 산업화시대의 인력을 공급해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94년 · 95년에는 인류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94년에 인터넷이 상용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식정보화사회에 진입한 원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95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습니다. 그 전과 그 후는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나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퇴출되었지만 대학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1조 2,000억원이 연구와 관련된 곳에 지원되었습니다. 반면에 교육에 관계된 곳에 지원된 액수는 3,50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렇다보니 교수들이 연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수들 사이에 논문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 과거에는 교육환경이 로컬 경쟁력을 중시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중시하는 개방된 체제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또 대단히 저비용 구조였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그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비용 구조의 대표적인 예가 교수 1인당 평균 학생 수입니다. 한국은 23.6명이지만 OECD 국가는 15.8명입니다. 암기를 강조하는 교수학습방법도 저비용 구조의 크나 큰 예입니다. 오늘날 대기업 매출



“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퇴출되었지만 대학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1조 2,000억원이 연구와 관련된 곳에 지원되었습니다. 반면에 교육에 관계된 곳에 지원된 액수는 3,50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렇다보니 교수들이 연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수들 사이에 논문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액의 70%가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는 상황으로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김태완 : 교육이 잘 되려면 교수와 학생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과 교수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와 학생 간에 소통이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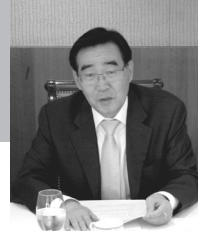
송승철(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회장·한림대학교 교수) :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같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수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학습의 동반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도 일부 교수들은 지식의 전달자로 생각합니다. 학생도 교수를 만날 마음이 없고, 교수도 학생을 만날 마음이 없습니다. 대학도 이같은 상황이라면 환경을 방치하거나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승진제도를 보면 연구는 핵심이고 교육은 립 서비스입니다. 교육은 강의실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같은 인식이나 고려가 없습니다.

최미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 : 최근에 모 대학생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교수와 상호관계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교수들은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매일 출근하시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학생들과 매일 교류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연구를 잘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대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교수님들이 낮은 자세로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보다 교수님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김태완 : 수업에서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재환(아주대학교 총장) : 교수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 학습자가 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교수들이 수업시간에 좋은 질문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학 수업을 촬영해서 관찰해봤습니다. 교수가 “질문 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무늬만 질문입니다. 이러면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수업시간 내내 지식을 전달하는 일반적인 강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받아쓰기에 바쁩니다. 어떤 교수님은 온라인으로 강의노트를 줍니다. 수업시간에 토론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학생들이 액티브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예습을 하고 책을 읽어보고 수업시간에도 토론을 한다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법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육환경이 로컬 경쟁력을 중시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중시하는 개방된 체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대기업 매출액의 70%가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력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는 상황으로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태완 : 경충에서는 대학에 요구하고 기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학이 기업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잘 부합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배 : 대체로 볼 때 불만을 가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집단적으로 교육을 별도로 시켜야 합니다. OJT(직장 내 교육훈련)로 상당부분 따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상당한 지식을 쌓아가고 나오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산업계에 나와서 배우는 지식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문제해결능력이나 집단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사회에 나왔으면 합니다. 대체로 보면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직에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진취적이면서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품성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식 공급이 품성입니다. 품성이 좋지 않으면 조직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부터 교수님과 투웨이(two way)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다룰 때 고객이라는 입장으로 다뤄야 합니다. 부하 직원에게 명령밖에 안 하면 정체되어서 조직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김태완 : 교육을 좀더 잘하기 위해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교육의 현주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학이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빠른 대학도 있지만 변화의 속도가 사회 요구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대학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들이 관심 가지는 것이 등록금 문제와 학생수 문제 등이 있지만, 실제로 양적인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질적인 부분에서 봐야할 주제가 있습니다. 변화가 요구되지만 변화가 느립니다.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대학의 본질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좋은 인재를 대학이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자 해서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산학협력국을 만들어 대학의 산학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선발에 있어서 입학사정관제도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적만이 아니라 꿈과 열정 등을 골고루 보고 학생을 선발해 적성과 재능을 키워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 교과에는 산학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교육이 약합니다.

김태완 : 대학 시스템 자체가 경직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융·복합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을 때, 일부 카이스트 학생들처럼 공부만 하다가 좌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이 잘 되려면 교수와 학생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과 교수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와 학생 간에 소통이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송승철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회장 · 한림대학교 교수

“흔히 한 명의 천재가 십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재 한 명이 나오려면 9만 9000명이 도와줘야 합니다. 한림대는 세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무도 낙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적응 학생 한 명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데 천재를 키우는 것 만큼 정성을 쏟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방법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신속하게 파악하고 밀착, 상담하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 오늘날과 같은 21세기 감성의 시대에는 좌뇌와 우뇌가 함께 기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동대학교는 개교할 때, 일반 대학들처럼 반은 사이언스, 반은 인문사회 계열 등으로 나누지 않고 처음부터 완전히 무전공으로 시작했습니다. 입학할 때 무전공 무학과로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학과 정원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교수님들 입장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무전공 무학과는 서로 다른 분야와 연결되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게 창출됩니다. 저는 융·복합적인 사고와 교육시스템에 입학사정관제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발견해 키우고 적성과 타고난 재능을 잘 발휘하도록 교육시킬 때 다양한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입학사정관 제도는 좋은 전형방법입니다.

안재환 : 대학교육의 목표가 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업무능력이 충분하고, 또한 편에서는 인성·소양 등 다양한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학과의 신설·폐지, 어떤 학생을 뽑느냐를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10년, 20년 전에는 어떤 세상이 올지, 어떤 학문이 생겨날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학생들 개개인의 자질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저도 옛날에 수업시간에 질문을 잘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학을 미국에 가서 다녔는데, 강의시간에 학생들이 아주 기초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남들이 흥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많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적응력 같은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학에서는 기초과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대학원에서도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완 : 최근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아카데미 어드바이스, 튜터제도, CTL 같은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적응 학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송승철 : 골치 아픈 학생으로 보는 관점부터 고쳐야 합니다. 흔히 한 명의 천재가 십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재 한 명이 나오려면 9만 9000명이 도와줘야 합니다. 제가 재직하는 한림대는 세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무도 낙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적응 학생 한 명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데 천재를 키우는 것 만큼 정성을 쏟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방법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신속하게 파악하고 밀착, 상담하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환
아주대학교 총장

김태완 : 최근 카이스트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태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안이랄까, 해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영길 : 카이스트의 설립목적이 세계를 무대로 일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응해 카이스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선도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연구에만 너무 몰입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들을 평가할 때 학생 멘토링이라든지 교육에 얼마나 힘을 쏟는지를 평가항목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영재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대학에 입학하다보니 좌절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영재들끼리 경쟁하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호 : 카이스트만의 특수한 문제도 있지만, 이번 사태는 언론들이 앓다튀 보도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게 됐고 대학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학생 한 명 한 명을 배려하고 상담을 하는 케어 문화랄까, 제도가 미약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 역시 부족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사실 대학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매달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책무성 얘기도 나왔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초·중등교육은 여러가지로 많이 보완되었지만, 대학은 자율성이 있어서 정부가 앞서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역량을 강화하는데 재정지원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학생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는데 카이스트 사태가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태완 : 등록금은 교육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질은 좀더 높이는 반면에 등록금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이주호 :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등록금 동결 내지는 인상 최소화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등록금을 올려서 대학을 발전시키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등록금 수준은 굉장히 높아진 데 비해 등록금 대비 만족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 대학들을 보면 기부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에 만족해 하고 모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기부금도 늘어납니다. 프린스턴대학은 졸업생의 70%가 대학에 기부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가 필요합니다.

김영배 : 대학 스스로의 구조조정도 필요합니다. 대학 직원의 임금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 임금수준이 교원들을 따라갑니다. 청소나 경비 용역 지출을 보면 너무 부하고 사치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정적인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학교육의 목표가 뭘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업무능력이 충분하고, 또 한 편에서는 인성·소양 등 다양한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학과의 신설·폐지, 어떤 학생을 뽑느냐를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10년, 20년 전에는 어떤 세상이 올지, 어떤 학문이 생겨날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학생들 개개인의 자질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 국회에서 국립대 재정회계특별법이 10년 이상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학 재정 운용이 불투명하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립대의 경우도 회계 투명성이 낮습니다. 대학 재정이 회기별로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김태완 : 최근에 대학에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특허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 재정을 확대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중국 칭화대 같은 경우, 지주회사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 거의 우리 돈으로 수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태완 : 영어교육에 대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어 교육을 잘 해야 하고, 수업도 영어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효용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길 : 한동대학교가 개교할 때 영어로 강의해보자고 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상황이랄까 효용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학분야는 용어가 다 영어라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버럴 아트 쪽에서는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영어강의를 통해 국제화에 대한 마인드 셋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부의 법학부 교육은 영어로 하기가 힘듭니다. 외국 교수를 많이 채용하면 영어도 배우지만 그 사람의 사고방식도 배웁니다. 그런 점에서는 영어교육이 중요합니다.

김태완 : 국립싱가포르대학 등 국제경쟁력이 높은 아시아 대학을 보면 대체로 외국인 교수 비율이 반 정도 됩니다. 그런 데서는 자연스럽게 영어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재환 : 영어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해 논란이 많습니다. 평가지표 중에 하나라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영어강의는 사이언스, 공학 쪽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책으로 1학년 때부터 영어실력을 함양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김영배 : 기업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중시하다보면 영어능력은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는 향상되나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 때문에 기술개발의 속도가 뒤지기도 합니다.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와도 영어수준이 뛰어나지 않은데, 영어수업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학의 문제는 글로벌시대에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국립대 재정회계특별법이 10년 이상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학 재정운용이 불투명하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립대의 경우도 회계 투명성이 낮습니다. 대학재정이 회기별로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

최미숙 : 필요한 강좌는 가능한 것은 하고, 대학 자율성도 주고 학생 선택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준별로 영어강의를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어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 지식만이 교육은 아닙니다. 글로벌 무대에 나가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사회에서는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된 것은 가치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교수님부터 정직한 태도를 보여 줘야 합니다.

김영배 : 대학이 들어갈 때는 휴먼 리소시스가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휴먼 캐피털이 돼서 나와야 합니다.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퀄리티를 중시하는 시대로 나가려면 자기가 본질적으로 소양과 인성,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전공실력은 물론, 품성을 동시에 길러서 사회에 진출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재환 :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인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간존중은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목표입니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교육 본연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인간과 자연의 고귀함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 교육과정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질집단이나 다른 문화와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송승철 : 대학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 하는데는 기업도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말로 기업이 창의적 인재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의적 인재를 보내면 기업이 그같은 인재를 잘 키워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창의적 인재가 기업에 들어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유학 간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기업이 인재를 뽑을 때 창의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학에서만 양성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김영배 : 요즘 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창의적 인재를 뽑으려는 기법을 많이 개발하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필요한 강좌는 가능한 것은 하고, 대학 자율성도 주고 학생 선택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준별로 영어강의를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어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일본 가토학원의 영어몰입교육, 23년간의 실험

글_ 이한규 | EBS PD

I. 영어 못하는 선진국, 일본

흔히 일본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한다고들 한다. 물론 이것은 체계적인 검증을 거친 사실은 아니다. 그냥 일종의 통념일 뿐이다. 세계 우수 선진국과 국력에 있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유난히 영어에 있어서는 맥을 못춘다는 일본. 이 통념이 제작진으로 하여금 일본의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갖게 했다.

결국 '세계의 교육현장' 제작진이 방문하기로 결정한 학교는 일본 시즈오카현에 위치한 가토학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설립, 운영하고 있는 이 재단은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영어몰입교육 인지라 취재가 조심스럽긴 했다. 그러나 이 학원은 이미 일본언론은 물론, 세계 여러 곳의 취재팀이 영어교육의 성공사례로 다녀간 바 있는, 명실 공히 일본 영어 공교육의 자랑이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당장 취재팀을 꾸려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II. 수업시간엔 영어만 쓴다

가장 먼저 이 학원이 운영하는 교슈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초등 영어교육이 영어몰입교육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제작진이 방문한 곳은 6학년 수학수업. 축척에 관한 내용이었다. '1km는 몇 cm일까?'를 묻는 교사. 학생들은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손을 든다.

교사 : 마사미치. 대답해봐

학생 : 1km는 1,000m이고요...1m는 100cm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00 곱하기 100 하면 100,000cm가 나옵니다.

교사 : 그래 잘했다. 다른 친구들도 이 대답에 동의하나요?

학생들 : 네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 대화가 100% 영어로 오고 갔다는 것이다. 교사는 캐나다 출신이었다. 2년째 이 학교에서 수학수업을 진행하는 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단 한마디의 일어도 하지 않았다. 학생들 역시 교사의 질문에 영어로만 답하고 영어로만 질문했다. 신선한 경험이었다. 물론 학생들의 발음이 원어민처럼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어순과 문법 그리고 해당 어휘는 정확히 구사했다. 학생 개개인의 영어실력도 실력이지만 학생들의 수업태도 역시 놀라웠다. 교사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 계속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은 세계의 교육현장 곳곳을 방문했던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서구사회 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이웃나라 일본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이 울렸다. 점심시간. 아이들의 수업 외 생활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일본의 여느 학교처럼 도시락을 싸 온 아이들. 도시락을 먹으며 친구들과 이런 저런 수다를 떠다. 일본어였다. 수업시간엔 영어만 말하고 듣던 애들이 점심시간이 되니 일어만 말하고 듣는다. 흥미로웠다. 한 아이에게 질문을 해 보았다. 수업시간에 하는 영어만으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고. 1학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다른 학생에게 물었다. 이런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영어과외를 따로 받는지. 그런 것 받아본 적 없단다.

Ⅲ. 알 때까지 가르친다

점심시간 후 4학년 수학시간을 참관했다. 나눗셈을 가르치는 시간. 그러나 교사는 나눗셈 자체만을 가르치진 않는다. 교사와 학생이 영어로 주고받은 대화는 아래와 같다.

교사 : 화가 히마리씨가 8주 동안 3968달러를 받았습니까. 일주일에 얼마를 벌었을까요?

학생 : 496.

교사 : 그건 답이고, 완전한 문장으로 말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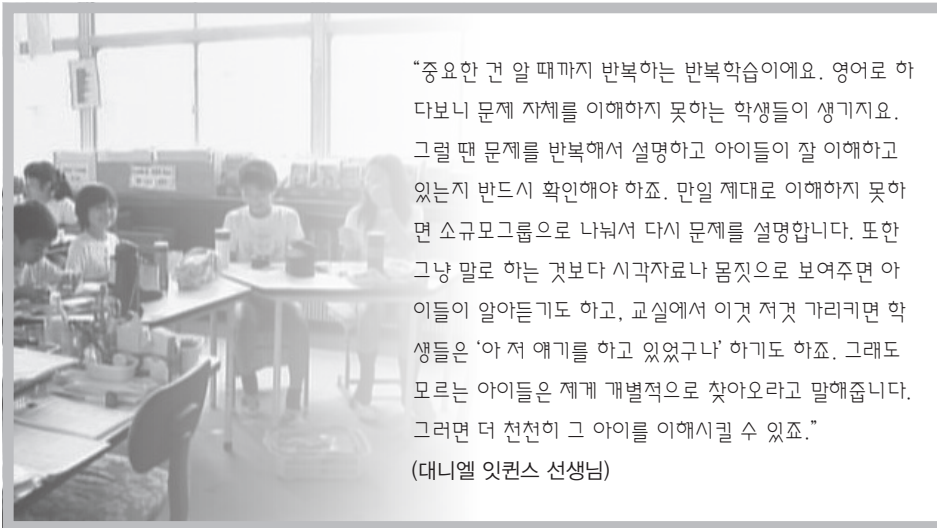
학생 : 화가 히마리씨는 일주일에 496달러를 벌었습니다.

교사 : 좋아 잘했다.

분명 수학시간이지만 단순히 수학만 가르치진 않는다. 수학의 개념을 문제화하는 것에서부터 벌써 영어훈련이 시작된다. 수학을 잘해도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인 것이다. 답변 또한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수학적 답변만을 내놓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완벽한 영어문장으로 답변을 해야 교사는 그 답을 인정해준다. 이처럼 모든 수업내용이 영어학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이 학교 수업의 특징이다.

수업을 참관하던 중 자기 책상에서 나와 칠판 앞에 따로 앉아 수업을 받고 있는 몇몇 학생

들이 눈에 들어왔다. 교사는 그 아이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보이고 수업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주는 듯 했다. 무슨 상황일까? 알고보니 그 아이들은 수업시간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이다 보니 6학년과는 달리 아직 영어에 익숙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배려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 학생들에게 일본어로 설명을 해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교사가 뉴질랜드인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알 때까지 반복하는 반복학습이에요. 영어로 하다보니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지요. 그럴 땐 문제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죠. 만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소규모그룹으로 나눠서 다시 문제를 설명합니다. 또한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시각자료나 몸짓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이 알아듣기도 하고, 교실에서 이것 저것 가리키면 학생들은 ‘아 저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하기도 하죠. 그래도 모르는 아이들은 제게 개별적으로 찾아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더 천천히 그 아이를 이해시킬 수 있죠.”
(대니엘 윌킨스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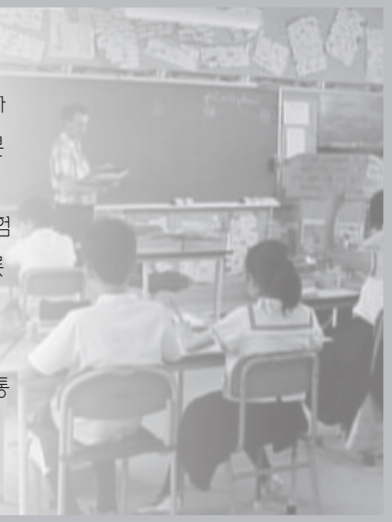
3년째 일하고 있는 대니엘 윌킨스 선생님의 말이다.

이러한 가토학원의 영어몰입교육에는 낙오자가 없다. 이해가 빠른 아이들은 빠른대로 좀 느린 아이들은 느린대로,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수업, 이것이 바로 가토학원의 이중언어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IV. 영어몰입교육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가토학원이 설립된 것은 지난 1926년이다. 여자고등학교에서 시작해 지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걸쳐 3천 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로 성장했다. 설립자 가토 후지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영어교육 선진화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외국어교육에 관한 각 국의 연구결과와 다양한 언어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영어몰입교육. 결국 가토학원 소속 교수초등학교는 1992년 일본 최초로 영어몰입교육 전문학교로 변모하게 된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소위 영어몰입교육에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나라들은 싱가포르나 북유럽처럼 대부분 그 나라 안에서 영어를 제2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속에

서 영어를 아예 쓰지 않는 일본에서 과연 모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은 가토학원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가토학원은 유치원을 포함해 소속 학교 전부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명실상부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이중언어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가토학원의 이중언어교육 프로젝트를 원년부터 담당해왔던 언어학자 마이크 보스트워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어를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라는 매체를 통해 뭔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여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일본의 환경에선 그러기 위해 학교에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교안에서 보내는 시간동안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 강렬한 경험을 해야지만 영어몰입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죠. 일본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권 국가들이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 과외나 학원과 같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효과측면에서 보나 비용측면에서 보나 학교교육을 통해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영어몰입교육 총책임자 _ 마이크 보스트워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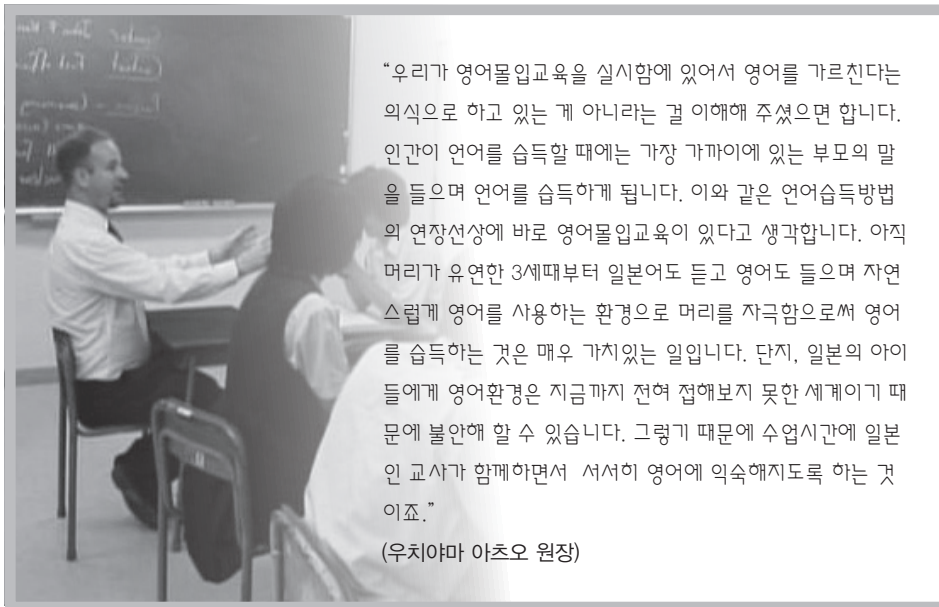
가토학원에선 수업시간에 필요한 교재를 모두 따로 만든다. 언어학자와 담당교사들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최고의 학습효과를 낼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심지어 교과서마저 바꾸기도 했다. 가토학원에서는 디자인과 편집이 국정교과서와 똑같은 언어만 영어로 되어 있는 과학 국정교과서 번역본을 만들었다. 처음엔 부정적이었던 일본 교육당국도 가토학원의 노력에 탄복해 결국 그 교재를 학교 정식 교과서로 허용해주었다. 척박한 일본의 영어환경에서 성공을 일구어낸 가토학원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V. 영어를 쏟아 붓다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일정 수준에 올라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토학원식 영어몰입교육. 그 시작점이 궁금했다. 아직 모국어조차 서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몰입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가토학원 유치원을 방문했다.

가토학원 유치원의 특징은 50% partial immersion이라 불리는 부분식 몰입교육이다. 즉, 아직 모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3~6세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업의 절반은 일본어로, 절반은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다. 여러 교실을 방문해봤다. 춤추고 노래하고, 선생님과 교보재

를 갖고 노는 모습이 우리나라 유치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것은 교사가 영어를 쓰는 것. 영어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춘다. 초등학교 학생들과 달리 아이들은 기본에 따라 일어로 말하기도 영어로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원어인 교사 옆에는 영어가 가능한 일본인 보조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보조교사 역시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에는 영어를 쓴다. 초등학교 수업이 교사와 학생이 영어로 소통한다는 느낌이었다면 유치원 수업은 교사가 학생에게 영어를 ‘쏟아 붓는’ 느낌이었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영어에 노출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우치야마 아츠오 원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의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간이 언어를 습득할 때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의 말을 들으며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언어습득방법의 연장선상에 바로 영어몰입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머리가 유연한 3세때부터 일본어도 듣고 영어도 들으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으로 머리를 자극함으로써 영어를 습득하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입니다. 단지, 일본의 아이들에게 영어환경은 지금까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일본인 교사가 함께하면서 서서히 영어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우치야마 아츠오 원장)

Ⅶ. 영어의 날개를 달고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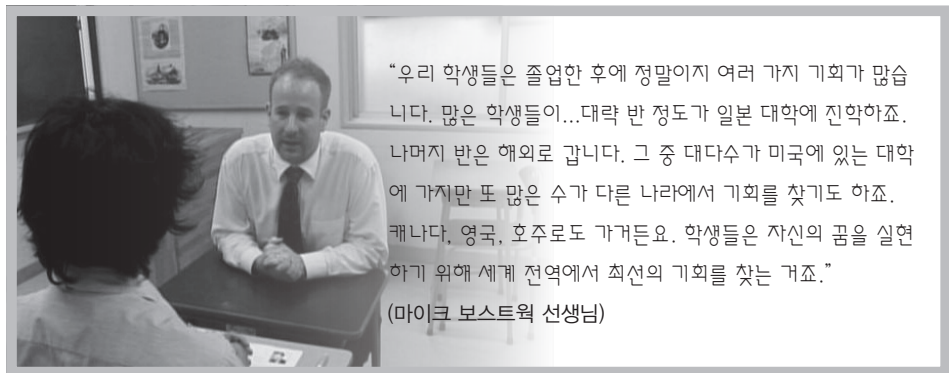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제작진이 방문한 곳은 가토학원 교슈고등학교. 중등교육의 정점인 고교교육에서 영어몰입교육은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영어수업이 한창인 고3 교실. 칠판엔 전 미국대통령인 존. F. 케네디의 대통령 취임연설문이 적혀 있었고, 미국인 교사는 그 연설문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 설명이 끝나자 학생들이 들쭉 들쭉 지어 마주보고 앉았다. 그리고는 연설문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얘기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다. 발음도 초등학생들보다 월등히 좋았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곧 영어로 수업을 받아온 학생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실력이 늘었다.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전전하는 한국학생

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어떻게 이 곳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수준을 다 맞춰줄 수 있는 것일까? 가토학원의 영어몰입교육은 비단 영어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보았던 학생들의 적극성이나 이 곳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토론식 수업을 보고 있으면 여기가 정말 일본교실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가토학원은 특유의 영어몰입교육으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극대화해주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주입식 수업을 탈피한 수업내용은 더더욱 학생들을 만족시켜 주고, 수준 높은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교육을 필요 없게 해 주었다.

학교에서도 영어몰입교육과 함께 이러한 사고형 수업방식을 추구하는 이유는 또 있었다. 바로 이 학교를 졸업하는 많은 학생들이 미국이나 영국 등 영어권 국가의 명문대에 입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아예 고3 학사과정을 해외대학 준비반과 국내대학 준비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설립자 가토 후지 선생의 유지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영어몰입교육 총 책임자 마이크 보스트워 선생님의 이야기다.




“우리 학생들은 졸업한 후에 정말이지 여러 가지 기회가 많습니다. 많은 학생들이...대략 반 정도가 일본 대학에 진학하죠. 나머지 반은 해외로 갑니다. 그 중 대다수가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지만 또 많은 수가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찾기도 하죠. 캐나다, 영국, 호주로도 가거든요.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전역에서 최선의 기회를 찾는 거죠.”

(마이크 보스트워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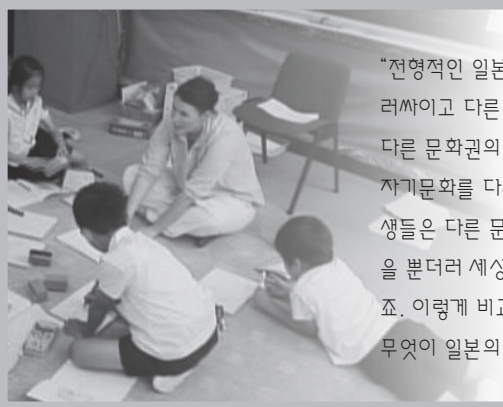
VII.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논란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다보니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저널리스트 특유의 본성이 발동했다. 그래서 취재 막바지에 가토학원 영어교육 총책임자 마이크 선생에게 영어몰입교육의 단점이라 지적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너무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접하게 되면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세간의 주장에 대해 마이크 선생에게 물어보았다. 마이크 선생은 그 논란에 대해 ‘이제껏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전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한다. 너무나 단호한 대답에 약간 의기소침해졌지만 질문을 멈출 수는 없었다. 다음은 영어몰입교



“그건 말도 안되는 전설(myth)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세계 전역에서 몰입교육분야에 있어서 진행된 연구조사에 따르면, 몰입교육이 어떤 식으로든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학습발달을 가로막는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증거가 더 많습니다. 몰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인지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학습발달을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융통성, 인지 개선 등의 분야에서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의 폐해 중 하나로 지적되는 정체성 문제, 즉, 영어몰입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애국심이나 국가 정체성이 희박해진다는 비판이다. 이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이크 선생은 대답 대신 책상서랍에서 한 연구자료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2001년 일본 츠쿠바대학 연구팀이 가토학원 학생들과 일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였다. 연구주제는 이중언어 학습과 국가 정체성에 관한 연구. 연구는 가토학원 학생들과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묻는 다양한 질문을 한 후 그 결과를 요인분석하여 통계처리한 것이었다. 연구결과,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가토학원 학생들이 일본인이라는 자각심과 애국심이 유의미하게 더 강했다.



“전형적인 일본인 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일본문화에 둘러싸이고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문화를 다른 문화와 비교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 소통할 기회가 많을 뿐더러 세상엔 다른 사고방식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본의 것이고 무엇이 일본의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난 며칠 동안 학교를 취재하면서 학생들이 모여 일본검술과 같은 무도(武道)수업을 받거나 다도(茶道)수업을 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러한 수업 역시 영어몰입교육을 하면서도 학생들의 국가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려는 학교 측의 학사운영이었던 것이다.

3박 4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일본인 특유의 깎듯한 인사를 받으며 가토학원 관계자들과 작별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내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영어교육을 위해 한 해에만 천문학적인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대한민국. 그만큼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학교 영어교육을 믿지 못한다. 어쩌면 영어몰입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지만 열린 접어버렸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 싫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를 나는 봐 버리고 말았다. 가토학원이 20여년 공들여 키운 그 화려한 꽃을... 식자우환(識者憂患)라고 하였던가. 한국에 돌아가면 그냥 모른 척 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화려한 성공사례의 꽃 이야기를 꼭 하리라... 이렇게 내 생각을 정리했다. ㄹ





“모든 아이는 영재다.” - 독일의 영재성 발굴 교육

글_ 서혜애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교수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제2수출국이며 유럽지역에서 정치·경제적 경쟁력이 가장 높은 나라로, 유럽연합(EU)을 이끌어 가는 리더 국가이다¹⁾. 역사를 통해 수많은 과학자, 발명자들을 배출해 왔으며, 현재도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독일의 교육체제는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교육체제에서 영재교육의 발전 배경과 운영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 영재교육의 발전 배경

독일 영재교육의 발전 배경을 단계별로 살펴보면²⁾, 먼저 1단계 태동기(Pioneers, ~1945)에는 심리학자 Stern (1871-1938)³⁾이 IQ 개념을 발명하였으며, 일반학생(IQ 평균=100; SD=115)에 비해 높은 IQ를 가진 영재(IQ 130 이상)들은 특별학급, 특별학교에서 심화, 속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형성된다. 한편 1916년 함부르크대학교(University of Hamburg) 연구팀에서 영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그러나 1933년 이 연구팀의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회주의 정부의 왜곡된 우생학 이론으로 종료된다.

1) 독일 면적 357,114km²(대한민국 98,480km²의 약3.6배), 2010년 기준 총인구는 82,329,758명(우리나라 남한 48,636,068명의 약1.7배)이며 국민일인당 소득 2009년 기준 US\$44,525(우리나라 \$17,074불의 약 2.6배))

홈페이지 <http://www.state.gov/r/pa/ei/bgn/3997.htm#profile> <http://www.state.gov/r/pa/ei/bgn/2800.htm> 참조

2) 독일 영재교육의 발전 4단계에 대한 내용은 다음 3편의 참고문헌에 근거하여 정리·종합하였다.

Nagy, T., & Györi, J. (2011); Persson, R., Joswig, H., & Balogh, L. (2000); Sloeger, H., & Ziegler, A. (2010)의 3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종합하였다. German perspective on giftedness. Keynote speech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ifted Education, Istanbul, Turkey, September 23-24.

3) William Stern(1871-1938). 독일 심리학자, 철학자, 베를린에서 독일계 유태인으로 출생. 1893년 베를린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University of Breslau(1897~1916), University of Hamburg(1916~1933) 교수로 재직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시 네덜란드를 거쳐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며, Duke University(1933~1938)에서 강의하다 심장병으로 죽었다. 개인의 성향과 지적 능력에 대한 심리학의 개척자로서, 1912년 IQ의 개념을 최초로 제창하였다. 이후, 프랑스의 Alfred Binet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미국의 Lewis Terman 과 연구진이 최초의 IQ 검사 도구를 개발하게 된다. 홈페이지 http://de.wikipedia.org/wiki/William_Stern 참조

2단계 동면기(Hibernation, 1945~1980) 시기의 영재교육은 동독과 서독으로 구분된 교육체제하에 진행된다. 전후, 동독의 라이프치히대학교(University of Leipzig)에서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자연과학과 러시아어영역의 영재교육을 실천하기 시작한다. 이 기관은 그 후 음악영역을 추가하며, 나중에는 체육영역을 가장 강화시키면서 사회주의체제하의 영재교육기관으로 발전한다. 한편, 1940년대 서독에서도 일부 소수 교육기관에서 유전적 요인을 기준으로 영재를 선발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서독의 영재교육은 일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동면기는 제2차 세계대전 시 엘리트에 대한 회의적 사고로 인해 영재교육이 거의 중단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들어서서 학부모와 일부 정치인들은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의 경제성에 대한 논의도 한편에서 이루어졌다. ‘우수학생 비율 이론(smart fraction theory)’의 입장에서 상위 5% 학생들의 성취수준의 중요성을 논의하면서 전체 학생에서 Gymnasium의 입학생 비율 20% 가운데 우수학생 5% 대상 차별화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3단계 발전기(Renaissance 1980~2005)를 맞이하게 된다. 서독을 중심으로 교육학자, 정치인들은 독일의 교육체제가 교육의 평등성에 비해 수월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더욱 인식하게 된다. 독일이 차세대를 이끌어 갈 과학기술분야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면, 독일은 다른 국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정치·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함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1980년대 말 PISA에서 독일은 유럽국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얻는 결과로 인해 정부차원의 지지를 더욱 강력하게 얻는다. 1990년대 들어서서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장치하에 영재를 선발하고 영재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한다.

200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⁴⁾, 독일의 16개 주 가운데 Baden-Wuerttemberg, Bavaria, Hamburg, Lower Saxony, Schleswig-Holstein의 5개 주는 ① 조기입학(early enrollment), ② 월반(skipping grades), ③ 집단월반(group skipping), ④ 속진(accelerated courses/programs), ⑤ 심화(enrichment), ⑥ 영재 대상 강좌 개설 또는 영재학교 운영(schools or courses for intellectually gifted pupils), ⑦ 영재 상담심리(counseling services specialized in giftedness), ⑧ 교사양성교육에 영재교육 포함(gifted education covered in standard teacher training), ⑨ 교사연수에 영재교육 포함(gifted education offered as supplemental training for teachers), ⑩ 학부모·교사 대상 영재교육 홍보책자 배포(information brochures and materials for teachers, parents, etc.)의 활동을 모두 실천하는 한편, 나머지 11개 주에서도 1, 2개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실천하면서 영재교육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영재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속진, 심화, 집단월반 등은 유의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국제 성취도 비교나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의 성과에 비추어 볼때, 독일은 영재교육에 대해 2배 이상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4단계는 재조명기(Re-orientation, 2005~)로서 지금까지 실천되어온 전형적인 영재교육 방법과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에서, 영재교육을 재조명하는 시기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학부모, 유치원, 학교, 영재교육 교사양성대학의 협력으로 보다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점이다. 특히 독일을 포함한 유럽 21개 국가의 영재교육 현황 조사결과 보고서에서는

4) 이 연구는 독일 연방교육부의 지원으로 유럽 21개 국가 대표들이 영재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독일의 자료수집은 2003년에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 F. Mönks, F., & Pflüger, R. (2005). p.31

영재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내에서 영재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며, 영재 교사의 질을 높이고, 교원양성교육의 필수과정으로 영재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⁵⁾.

II. 독일 영재교육의 운영 형태

1. 국립영재교육연구소의 역할

1985년 독일과학기부협회⁶⁾에 의해 설립된 ‘교육과 재능(Bildung und Begabung)’은 독일의 영재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학교밖 영재교육을 수행해왔으며, 2010년 국립영재교육연구소(nationalen Zentrum für Begabtenförderung und Begabungsforschung)로 확대되었고, 이는 현재 본(Bonn)에 본부를 두고 있다. 매년 영재성을 보이는 청소년 240,000명을 대상으로 재능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관의 핵심적 교육활동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전국 수학경시대회, 전국 외국어경시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상급학년 학생 대상 독일영재중학교(Deutsche Junior Akademien), 중등학교 학생 대상 독일영재학교(Deutsche Schüler Akademien)를 운영한다. 이들 학교는 유사한 관심영역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교 교수 또는 연구소 전문가의 지도 하에 전공영역 및 개별 연구영역을 심화교육을 통해 개발한다. 이 기관은 재능이 뛰어나지만 사립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영재교육과 재능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재 이 기관은 연방교육부와 독일과학기부협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의 대부분을 제공받는다.

독일영재학교는 1988년 본(Bonn)에 최초로 설립된 후 1993년 연방 의회의 승인으로 연방 교육부 차원 학교 운영 예산을 영구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점차적으로 학교 수를 증원시켜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도시에 12개의 영재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 정규학교 밖 영재교육 : 독일영재학교, 독일영재중학교

독일영재학교(Deutsche Schüler Akademien)⁷⁾는 1988년 처음 설립된 하계학교로서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재능이 있는 중등학교 학생(17~18세) 대상 학교밖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대학 수준 주제 중심 강좌로서 수학,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경제학의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제공하며 2009년에는 예술영역 강좌도 도입하였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현재까지 개발된 연구결과를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지적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독일 전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도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개별학교는 여름방학기간 동안 17일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은 6개 강좌를 수강하며, 한 강좌에는 강사 2명이 학생 16명을 지도한다. 각 영재학교는 학교장(Academy director) 1명, 교감



5) F. Mönks, F., & Pflüger, R. (2005), p.8

6) 독일과학기부협회(Stifterverband für die Deutsche Wissenschaft)는 1920년 과학 및 대학교육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특히, 과학과 경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 협회는 독일은행, Baimler, Bosch 등을 포함한 3,000개 이상의 기업체, 산업체가 기부하는 재정으로 운영된다. 주요 활동은 ① 과학계의 성과 향상, ② 대학교육 지원, ③ 국내 및 국제 차원의 과학영역 협력 개선, ④ 청소년 과학영재성 개발, ⑤ 과학-정치-경제-사회 간의 상호협력 관계 개선, ⑥ 대중의 과학에 대한 이해증진이다. www.de.wikipedia.org/wiki/Stifterverband_f%C3%BCr_die_Deutsche_Wissenschaft 참조

7) 홈페이지 참조 : <http://www.deutsche-schuelerakademie.de/>

(Assistant of the Academy; 주로 이 학교 졸업생) 1명, 강사 12명으로 구성된다. 고등학생(Gymnasium 졸업을 2년 앞두고 있는 학생; 즉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가운데 전국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단위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면 입학자격을 가진다.

독일영재학교는 1988년 본(Bonn)에 최초로 설립된 후 1993년 연방 의회의 승인으로 연방 교육부 차원 학교 운영 예산을 영구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점차적으로 학교 수를 증원시켜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도시에 12개의 영재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009년 10개 영재학교에서는 총 1,0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63개 강좌를 제공하였다. 2006년에는 지원생의 62%가 입학하여 거의 2: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교는 공공기관 또는 개인 기부금으로 입학금의 대부분을 지원받으며, 학생들이 일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는 정부차원의 사회복지 지원금으로 되돌려 받는다.

한편 독일영재중학교(Deutsche Junior Akademien)는 주로 12-13세 학생을 대상으로 2003년 2개교가 개교하였으며,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서로 다른 주에서 11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독일영재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독일영재학교 준비단계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이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독일영재학교를 자동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는 않는다. 각 주의 학교별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내용, 교육기간, 입학자격, 경비 등은 차이가 있지만 독일영재학교와 협력 하에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영역은 자연과학, 인문학, 음악, 미술, 체육, 그리고 현장학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입학자격은 단위학교 추천이나 전국단위 경시대회 입상실적이다. 학교는 주로 주 차원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며, 연방에서는 일부만 지원한다.

3. 정규학교 내 영재성 개발 체제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영재성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재능개발프로그램(talent development program)을 제공한다. 재능개발프로그램은 속진, 심화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먼저 교사는 또래 학생들보다 높은 능력과 남다른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재능개발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만일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 밖 재능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비용이 소요된다. 학생이 12세에 이르면, 주정부 차원의 독일영재중학교 여름영재교육프로그램을 1회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다. 그밖에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재능개발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초등학생이 일단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중등교육에 진학한다. 영재성 또는 재능이 있는 학생은 Gymnasium⁸⁾에 입학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들이 17, 18세가 되면 독일영재학교의 여름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개별 학생은 1회만 참여할 수 있다. 이후 대학입학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대학교육에서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4. 대학 진학 후 영재성 개발 체제

대학에 진학한 영재들은 장학금을 받고 재능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급학년 학생들을 멘토로 대학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전공영역의 최근 연구에 참여하고 다양한 학술대회에 참여하며 연구를 수행한다. 이들은 전공영역별 그룹으로 조직되어 장학금 제공 재단의 요구사항으로 신입생 대상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각종 경시대회에 참여하기도 한다. 대학생활 동안 전국을 여행하면서 다른 지역 대학의 영재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8) 독일의 중등교육은 3가지로 구분된다. 이 3가지 유형의 학교는 입학하는 학생의 초등학교 졸업성적과 졸업 후의 진로방향으로 구분된다. Gymnasium은 최상위 20% 학생들이 입학하며 대학진학을 목표로 공부한다. Realschule는 중간수준으로 전체의 35% 학생들이 포함되며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해 Gymnasium으로 전학하거나 기술자를 목표로 도제교육에 참여하기도 한다. 10, 11세에 입학하여 16세 또는 17세에 졸업한다. Hauptschule는 하위 35~40%의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15세 또는 16세에 졸업하며, 곧바로 직업교육을 받게 되며 공공기관 사무직, 비서직 등의 일을 하게 되며, 지적 업무보다 단순 업무를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일부 우수한 학생들은 Gymnasium이나 Realschule로 전학한다. 독일 전체 학생 가운데 Gymnasium에 입학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70년 1.4%; 1982년 3%; 1991년 6.5%; 2000년 11%이며, 2010년에는 20%에 이른다.



Ⅲ. 독일 영재교육의 새로운 시도들

1. 주 차원 영재교육센터(Center for Gifted and Talented)⁹⁾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바바리아(Bavaria)는 영재교육을 선도하는 주이다. 2008년 이 주에서는 영재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바바리아영재교육센터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3~18세 학생들의 영재성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특히 학부모, 교육자를 코치하고 상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센터는 영재 대상 교수법 및 상담에 대한 자문, 진단, 치료의 일일업무를 수행하며, 지역학교 요청에 따라 워크숍, 강의 등을 제공하거나 교사연수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2. 청소년과학자경시대회(Jugend-forscht)¹⁰⁾

자연과학, 수학, 기술 영역 재능을 발굴하는 경시대회이다. 매년 10,000명 이상이 참여하며 청소년과학자경시대회로서 유럽에서는 가장 큰 행사이다.

아이디어-발명-신제품의 국제무역축제(iENA: the International Trade Fair for Ideas-Inventions-New Products)¹¹⁾는 독일과 전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발명, 제품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행사이다. 1965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별 발명, 신제품을 전시하는 장소로 영재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사이다.

3. 어린이 대학교(Die Kinder Uni)¹²⁾

2002년 튀빙겐대학교(Tübingen University)에서 처음 시작한 모형으로 현재 70여개 대학이 어린이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 튀빙겐대학교의 홍보담당자와 지역 신문사 소속 2명의 언론가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7~14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과학 관련 일련의 강좌를 제공하였다. 강좌 주제는 ‘왜 화산이 폭발하는가?’, ‘하늘의 별들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등 이다. 참여하는 아동들은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며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게 된다. 독일의 70여개 대학교를 포함하여 유럽 전역에 200여개 대학교가 네트워크¹³⁾를 형성하여 서로 다른 모형을 공유하며 대학교 대 대학교 멘토십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행사를 개최한다.

4. 유럽인 재능 축제(European Talented Day)¹⁴⁾

독일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은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다문화 간 도

9) <http://talentday.eu/germany> 참조

10) <https://www.jugend-forscht.de/> 참조

11) <http://www.iena.de/en/topmenu/home.html> 참조

12) <http://www.die-kinder-uni.de/html/home.html> 참조

13) <http://eucu.net> 참조

14) <http://talentday.eu/content/european-talented-2011> 참조

독일은 영국, 스위스와 함께 유럽에서 영재교육으로 가장 앞서가는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년 동안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조직된 영재교육체제와 개인 기부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출처 : http://eucu.net/resources/about/what-is-a-children_s-university

전, 사회긴장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재능있는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가단위의 재능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는 헝가리국립재능개발위원회를 조직하고 국가단위의 재능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반대중의 영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일종의 축제를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매년 3월 25일(헝가리 작곡가, 피아니스트 Béla Bartók의 출생일)에 개최되는 이 축제는 유럽인의 재능축제로서 초기에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의 인근국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점차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서 참여하거나 지역, 국가단위, 및 유럽단위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와 재능개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

IV. 결론

독일의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IQ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적으로 뛰어나면서도 재능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교육을 받게 되기도 하며, 전체 학생의 15%에 이르는 학생들이 Realschule 또는

Hauptschule에 다니면서 유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들을 포함한 영재들의 선발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10여년에 걸쳐 대규모¹⁵⁾로 시행되는가 하면, 가장 효과적인 영재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¹⁶⁾하면서 전문가 대 영재의 일대일 멘토링 교육을 강화하는 영재교육프로그램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영국, 스위스와 함께 유럽에서 영재교육으로 가장 앞서가는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년 동안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조직된 영재교육체제와 개인 기부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충분한 지원금으로 각종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나아가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 영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재능개발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영재성 발굴 교육의 다양성과 유럽국가와의 공동협력을 통한 영재교육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진다. ✎

〈참고문헌〉

- 1) Heller, K. (2005). Education and counseling of the gifted and talented in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27(2), 191-210.
- 2) Heller, K. (2007). Scientific ability and creativity. *High Ability Studies*, 18(2), 209-324.
- 3) Heller, K., & Perleth, C. (2008). The Munich high ability test battery (MHBT): A multidimensional, multimethod approach. *Psychological Science Quarterly*, 50(2), 173-188.
- 4) F. Mönks, F., & Pflüger, R. (2005). Gifted education in 21 European countries: Inventory and perspective, pp.35-41. Germany: Radboud University Nijmegen.
- 5) Nagy, T., & Györi, J. (2011). Talent support in Germany based on a talent development model. In: J. Györi (Ed.) *International Horizons of Talent Support, I: Best Practice Within and Without the European Union* (pp. 73-93). Hungary: Association of Hungarian Talent Support Organizations.
- 6) Persson, R., Joswig, H., & Balogh, L. (2000). Gifted education in Europe: Programs, practices, and current research. In: K. Heller, F. Mönks, R. Sternberg, & R. Subotnik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Giftedness and Talent* (pp.713-715). Oxford, UK: Elsevier Science Ltd.
- 7) Stoeger, H., & Ziegler, A. (2010). German perspective on giftedness. Keynote speech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ifted Education, Istanbul, Turkey, September 23-24.
- 8) Tang, M., & Neber, H. (2008).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science learning in high-achieving students: differences related to nation, gender, and grade-level. *High Ability Studies*, 19(2), 103-116.

15) Heller, K. (2005); Heller, K. (2007); Heller, K., & Perleth, C. (2008)

16) Tang, M., & Neber, H. (2008)

“체육 통해 인성 기른다.” 선진국의 체육수업

글_ 문익수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체육위원회 위원장

체육 연구는 크게 심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체적 구조와 근육 신경계의 발달 등을 포함하여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 변화를 연구하는 심동적 영역(체, 體)과 정신과 신체의 기능적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움직임을 연구하는 인지적 영역(지, 知)은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움직임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과 이러한 감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움직임을 연구하는 정의적 영역(덕, 德)은 전인(whole person)을 지향하는 체육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과학적인 방법과는 무관하게 체육이 정의적 영역을 함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협동심, 충성심, 자기희생, 공정성, 정직성, 책임감, 리더십 등은 실체를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체육을 통해 당연하게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체육을 통해 정의적 영역의 가치덕목들인 인성이 정말로 길러질 수 있는지에 대해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그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I. 체육에서의 인성

1. 스포츠는 인성을 함양한다?

— “Sport builds character.”(Sage, 1988)

지난 수 십년 동안 학자를 포함한 학교 선생님, 학부모, 일반 시민들은 스포츠 참여가 인성을 발달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체육활동의 경험은 인격형성, 도덕성 발달의 축구, 건전한 시민정신 등 특정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규범과 역할을 학습하는 데 최선의 수단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왔고, 실제로 체육활동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규칙의 준수와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은 자기통제 및 자기수양을 유도하며, 경기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협동성과 책임감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가치 및 태도를 형성시킴으로써 인성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증가 및 프로 스포츠의 대두와 함께 “어떻게 하든지 이겨라(win at all cost)”라는 말에서 보듯이 경쟁성, 승리지상주의 등과 같은 현실적 가치가 강조됨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스포츠가 바람직한 기능만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체육이 인성을 기르지 못한다. 인성을 가르친다.”라고까지 말한다. 더구나 체육활동으로 인한 인성형성에 대한 경험적 증거 또한 명료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아무 근거없는 체육과 인성형성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주장은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과 학자들을 연구에 전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성의 연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인성이란 단어에 내포된 많은 뜻과 이의 모호함이었다.

2. 인성의 정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스포츠가 인성을 발달시킨다고 말할 때, 그들은 정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인성이란 단어는 많은 뜻을 가질 수 있으며,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인성이란 단어는 여러 가치와 연관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성이란 단어의 철학적·역사적 고찰을 통해 단어

의 정확한 정의를 얻어내야만 한다.

인성은 영어로 Humanity 또는 Character, 한문으로는 人性(또는 心性, 德性)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본바탕을 이루는 성품으로서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인간으로서의 본래 특성을 의미한다. 즉 인성은 인간의 성품(性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연적 성질을 가리키며, 성품은 성질(性質)과 품격(品格)으로 구성된다.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인간됨(사람됨)의 바탕이다. 마음의 바탕으로서 성질은 선악(善惡)을 느낄 수 있고 시비(是非)를 판단할 수 있으며 행동을 다짐할 수 있는 지(知), 정(情), 의(意) 세 요소로 구성된 움직임의 근원으로서 정신작용의 총체이다. 성질이 가치중립적인 의미인데 반해, 품격은 사람됨을 나타내는 말로 ‘사람답다’라는 일정한 가치기준에 도달할 것을 상징하고 있다(남궁달화, 1999; 이계학, 2004). 따라서 좋은 인성은 선을 알고, 선을 추구하며,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정신,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 인성교육은 바른 행동을 알리고, 그 가르침을 시행에 옮기도록 돕는 것이다. 인격은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맨십은 운동참여시 드러나는 좋은 인성으로 정의 내려질 수 있다. 스포츠맨십은 우리가 체육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의적 영역의 가치요인이기도 하다.



II. 미국의 체육·스포츠활동과 인성교육

인성을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 대체로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하나는 ‘도덕적 인성’의 측면으로 정직성, 정의, 책임감 등의 가치를 가지고 정의를 내린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인성’의 측면으로 충성심, 자기희생, 협동성 등의 가치를 가지고 정의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현장을 다른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도덕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매우 뛰어난 상황을 제공하는 도덕적 실험장(moral laboratory)으로 간주하고, 전반적으로 도덕적 사고(moral reasoning)에 초점을 맞춰 인성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코칭 자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스포츠교육프로그램(ASEP, American Sport Education Program)에서 진행되는 인성교육도 이와 유사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진행이 되고 있다. ASEP은 ‘선수 우선, 승리 차선 athletes first, winning second’을 기본철학으로 1976년에 설립되어 지도자, 심판, 행정가,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마추어 스포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인성을 존경심, 책임감, 배려심, 정직성, 공정함, 시민의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미국스포츠교육프로그램 인성지침(Martens, 2004)

가치	일상생활에서		스포츠현장에서
존중심	다른 사람을 존중 다른 사람의 소유물 존중 환경 보호 자신을 소중히 여김	→	경기 자체, 규칙, 전통 존중 상대편을 존중 심판을 존중 승패를 모두 존중
책임감	자신의 책임 다하기 신뢰감 쌓기 자기 관리에 철저하기 끈기 갖기	→	자신을 최고의 상태로 준비시키기 경기과 연습 시간 잘 지키기 성실하기 협동심 기르기
배려심	인정 많음 용서하기 관대와 친절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	→	상대편 구성원 돕기 곤란에 빠진 구성원 돕기 비난 보다는 칭찬하기 자신이 아닌 팀을 위해 경기하기
정직성	진실함 청렴한 생활 신뢰있는 사람되기 옳은 일에 용기 갖기	→	규칙 지키기 팀에 충성하기 약물복용 안하기 잘못을 시인하기
공정함	대접 받고자 하는대로 상대를 대접하기 다른 이에게 관대하기 나눌 줄 알기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기	→	팀 구성원 대접하기 나와 다른 모든이에게 공평하기 다른 구성원들에게 기회주기 경기의 규칙을 잘 지키기
시민의식	법과 규칙 준수 바른 교육과 지혜 갖추기 사회에 공헌하기 다른 이를 보호하기	→	좋은 본보기가 되기 우수성을 위해 노력하기 다른 선수들도 바른 시민의식을 갖게하기



미국사회에서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긍정적 효과는 지도자와 연구자들로부터 이미 인정받았지만 오래되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스포츠를 지도하고 가르쳐온 지도자와 선수들은 스스로의 체험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사고와 태도를 위하여 체육이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ASEP에서는 다음의 6단계 과정을 교육시키고 있다. 1단계는 상호간에 도덕성을 포함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승부에 대한 집착보다는 선수를 우선시하며, 패배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승패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서로의 경쟁보다는 존중하는 문화 등을 만들어 도덕적 팀 분위기를 형성한다. 2단계는 도덕적인 행동을 따라하게 한다. 미국 노트르담대학의 전설적인 미식축구코치였던 누트 라크니는 “말이 앞서서 오십 명의 사람보다 좋은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낫다”고 하였다. 실제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프로선수들은 스포츠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다. 3단계는 올바른 행동을 위한 규칙을 정하여 바른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단계는 서로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체육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단계는 앞에서까지의 내용을 스스로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적용시키는 것이며, 마지막 6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

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상의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수들에게 존경심을 길러주기 위해 경기가 끝난 후 상대편 선수들과 악수를 하게 하고, 지역 봉사활동에 동참을 시키고, 책임감을 길러주기 위해 운동기구를 정리하고, 경기가 끝난 후 뒷정리를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긍정적 효과는 지도자와 연구자들로부터 이미 인정받았지만 오래되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스포츠를 지도하고 가르쳐온 지도자와 선수들은 스스로의 체험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사고와 태도를 위하여 체육이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최의창, 2010). 또한 스포츠를 통한 선수들의 올바른 인성함양은 다른 사람의 역할모델이 됨으로써 또 다른 공헌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3년에 벌어진 도로 사이클 경주인 ‘투르 드 프랑스’경기를 들 수 있다. 이 경기에서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이 환호하는 군중 옆을 빠져나갈 즈음 손을 앞으로 뻗은 채 응원하는 한 어린이의 가방에 핸들이 걸리면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바로 뒤에서 추격하던 안 올리히는 가까스로 충돌사태를 면했다. 그러나 그

순간 올리히는 사고지점을 조금 벗어난 지점에 페달에서 발을 내려놓은 채 암스트롱이 다시 레이스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올리히의 도움으로 다시 페달을 밟은 암스트롱은 구간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 결국 투르 드 프랑스 사상 두 번째 5연패를 달성했다. 또 다른 예로 2004년 올해의 페어플레이 상을 받은 프로야구팀 뉴욕 양키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타자들을 들 수 있다. 수상이유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선발투수 커트 실링의 부상을 고려해 번트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두 팀의 타자들은 정면승부를 펼친 끝에 패배를 감수했다. 앞의 두 가지 사례에서 비록 이들은 승부에서는 졌으나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스포츠의 또 다른 의미를 일깨워 주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물론 스포츠장면에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Etizen(1999)은 스포츠의 경쟁적 본질로 스포츠맨십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발휘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성교육에 있어서 체육의 가치는 앞서 언급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현장의 지도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Shields와 Bredemeier(2008)도 그동안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훌륭한 프로그램, 최고의 역할모델, 적절한 환경적 요인들이 마련된다면, 스포츠를 통해 학생들이 인성과 연관된 긍정적 가치들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Ⅲ. 일본의 체육·스포츠활동과 인성교육

일본에서 체육학 또는 체육교육학 분야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용어를 간단히 살펴보면, 人性(또는 人格)이라는 표현보다는 人間(또는 人間性)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수의 문헌에서, 영어의 ‘Character Building’ 개념에 대응하는 단어로 ‘인간형성(人間形成)’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형성’ 즉,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초·중등학교 체육교육 목표나 구체적 수업목표 수준에서 접할 수 있는 용어는 ‘민주적 인간형성’, ‘주체적 인간형성’ 및 ‘사회성’ 혹은 ‘도덕성’, ‘풍부한 감성을 가진 인간’ 등을 들 수 있다(友添秀則, 2009; 桜井佳樹, 2007).

일본에서는 2000년 대 들어 초·중·고 학생들의 왕따, 학교 부적응학생, 청소년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교육계 전반에 걸쳐 크게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체육분야에서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 인물로는 토모조에(友添秀則)를 들 수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체육은 인격을 도야(陶冶)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전인간형성의 장(場)을 제공할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일본의 학교교육에서 체육교육은 그러한 실천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체육교육의 과거와 오늘에 비추어 보면 일본의 경우는 인성교육에 있어 체육활동의 중요성 인식과 실천노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빨랐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제시된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이러한 논의와 실천적 노력을 보였던 흔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47년에 발표된 체육교육과정에서 일본은 ‘민주적 교육을 통한 인간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교육

의 목표를 표방하면서, 체육교육에 있어서는 체육·스포츠 활동을 교재로 한 학습을 매개로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사회성과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상황에 따라 표현의 강약과 목표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어 왔지만 체육과의 목표로서, '인성'과 관련한 직·간접적 언급은 존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이러한 '인성교육'의 구현 노력과 주장은 항상 중앙정부와 교육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영향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와 현재 일본의 학교체육에서 교수·학습방법 및 교재, 교구개발, 프로그램 및 체육교육철학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주체가 또 하나 있기 때문이다. 1950년 중반에 등장한 두 개의 민간 체육연구회로 1955년 단계(丹下)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학교체육연구 동지회'와 다케노시타(竹之下)가 주축이 된 '전국체육학습 연구회'(1956년 등장, 1961년 정식설립)이다. 이 두 단체는 체육교사들이 주축을 이루었었기 때문에 향후 학교체육 현장에 커다란 기반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들 단체는 때때로 교육철학과 각론, 구체적 수업방법과 지도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기도 하였으나, 체육실천의 민주화·과학화에 있어서는 일치된 관점으로 민주적인 인간육성을 주창하며 학습자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학습기회의 균등(학습권)에 초점을 맞춘 체육수업의 실현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 교수·학습방법으로서는 교사 주도의 '일제식 학습'에서 탈피하여 철저한 '소그룹'위주의

수업운영방식으로 민주적인 집단과 민주적 인간관계 형성 등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육수업 만들기에 노력하였다.

특히 학교체육연구동지회는 '운동기술과 소그룹'을 핵심 주제로 철저히 '소집단'중심의 학습 전개방식을 통해, 체육과의 목적을 <학습자 모두가 운동의 진정한 즐거움을 알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계통적인 기술지도> 및 <그룹이나 집단의 질적 향상에 의한 민주적 인간 형성>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를 내걸고, 실천적 연구를 전개하였고, 기능이 뛰어난 학생이 집단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나 사회성이 뛰어나지 않은 학습자들도 발언이나 활동기회를 보장하는 수업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어 집단 내에서 연학기회의 균등화, 게임에의 평등한 참가를 중시하여 소외학습자가 없도록 하는 수업실현을 철저히 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체육을 통한 인성발달에 있어 스포츠에 내재된 반사회적인 요소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성을 중시하는 체육활동 분야로 검도, 가라테 등의 '무도'분야를 들 수 있다. 무도를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무도인 혹은 연구자들은 '스포츠'라는 용어 안에 '무도'를 포함시키기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학자나 지도자들은 무도가 경쟁과 승패를 가르치는 지금의 스포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달라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무도를 '인격도야의 장'으로 강조하면서 올림픽과 같은 승리의 획득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쟁스포츠화'를 극도로 경계하는

인성교육에 있어서 체육의 가치는 앞서 언급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현장의 지도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Shields와 Bredemeier(2008)도 그동안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훌륭한 프로그램, 최고의 역할모델, 적절한 환경적 요인들이 마련된다면, 스포츠를 통해 학생들이 인성과 연관된 긍정적 가치들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즉 무도 본연의 위치는 ‘자기수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현장사례와 연구사례를 종합해 보면, 비록 확정적인 결과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교육적 조치를 취한 체육활동은 학생의 스포츠맨십을 포함한 긍정적 인성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맺으면서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자 목표인 것이다. 체육을 통한 올바른 인성의 습득 가능성은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칠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한가지 선결해야할 부분이 있다. 바로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믿음과 실천적 방법 제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체육을 통한 올바른 인성의 습득 가능성은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우선 한가지 선결해야할 부분이 있다. 바로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믿음과 실천적 방법 제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글을 마무리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실천방안을 기 수행했던 본인의 조사를 토대로 간단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교수전략의 개발과 적절한 수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효율적인 수업관리와 시설에 대한 확보 또한 포함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협동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통합적 접근, 다양한 영상매체 활용 등의 다양한 교수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교사의 자기성찰과 헌신적인 노력, 교사의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 역할, 그리고 교사로서의 자질함양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숭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보다 효율적인 인성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체육교사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체육교사교육의 질을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른 교사양성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체육교사교육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과거에 비해 교사교육전문기관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재편성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기존의 체육수업내용과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새로운 수업모델과 수업내용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육수업의 운영은 학생들의 인성을 포함한 정의적 발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 전인적인 학교교육으로서 체육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평생체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 글을 마무리 짓는다.ㄹ

“ 체육수업의 운영은 학생들의 인성을 포함한 정의적 발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 전인적인 학교교육으로서 체육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평생체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한다. ”



〈참고문헌〉

- 1) 남궁달화(1999). 인성교육론. 서울: 문음사.
- 2) 이계학(2004).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 서울: 청계.
- 3) 최의창(2010). 스포츠맨십은 가르칠 수 있는가?-체육수업에서의 정의적 영역 지도의 어려움과 가능성.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1-24.
- 4) 桜井佳樹(2007). 体育と人間形成. 香川大学実践総合研究, 14 : 41-50.
- 5) 友添秀則(2009). 体育の人間形成論. 東京:大修館書店.
- 6) Eitzen, S. (1999). Fair and foul: Beyond the myths and paradoxes of sport.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7) Martens, R. (2004). Successful Coaching(3rd Ed.).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8) Sage, G. (1988). Sport participation as a builder of character? The world and I, 3 (10), 629-641.
- 9) Shields, D., & Bredemeier, B. (2008). Sport and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In L. Nucci. & D. Narvaez(Eds.),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pp. 00-519). New York: Routledge.

고등교육 학자금·인재육성 지원현황과 발전방향



글_ 이경숙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I. 인재강국의 ‘국가 인재육성 학자금지원기관’

얼마 전 자동차 엔진개발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우는 이현순 전(前) 현대·기아차 부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현순 전 부회장은 1980년대 초 GM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우리나라 자체 엔진개발을 염원하던 고(故) 정주영 회장의 부름을 받고, 현대차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현대차 울산연구소는 말이 연구소지 직원 대부분이 고졸 제도사, 정비사였던 시절로,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에서 기술을 사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고 있던 수준이었으며, 그와 현대차가 자체 엔진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세계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들을 전혀 주목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대학원 출신의 연구인력들을 꾸준히 충원하고 무수한 실패를 경험삼아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축적된 기술은 없었지만 그와 그가 영입한 훌륭한 인적 자원들은 그로부터 20여년 후 크라이슬러·미쓰비시·푸조자동차 등에 수출하는 세타엔진을 개발, 세계최고 수준의 엔진개발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가 처음 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했던 1960년대, 세계는 전혀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다. 반도체산업에 진출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연간 6백만대가 넘는 차를 생산하는 세계 5대 자동차생산국으로 성장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IT 강국으로 지구촌의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다.

인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부존자원이 풍부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출발이 남들보다 빨랐던 것도 아니었다. 오직 ‘교육의 힘’, ‘인재의 힘’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빠르게 성장해온 나라, 바로 인재강국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한국장학재단은 이처럼 세계 최고 인재강국의 ‘국가 인재 육성 학자금지원기관’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2009년 5월 설립되었다.

‘공부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출범한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존 15개은행 5천여개 지점에서 시행되던 학자금대출사업 및 학술진흥재단·한국과학재단 등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국가 장학금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국가 학자금지원사업의 단일창구라는 새로운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섬김리더십과 봉사의 미덕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한국인재 멘토링 네트워크, 대학생 지식봉사 등 국가 인재육성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제 2주년을 갖 지난 한국장학재단은 아직은 도입기에 있다.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도전과 성장을 위해 국가 학자금지원사업과 인재육성 지원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인재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지원기관’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II.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사업 현황 및 개선방향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사업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왔다. 이때 학자금대출은 시중 9개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이 제도의 한계는 금리에 있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대출재원을 마련하고 5,000여개 지점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다보니, 이러한 제반활동에 대한 수수료가 금리에 반영되어 최고 7.8%의 높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고, 그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직접 대출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정부 학자금대출 지원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접 채권을 발행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뱅킹으로 온라인 직접 대출을 시작했다. 이러한 대출과정의 개선을 통해 2009년 2학기 5.8%, 2010년 1학기 5.7%, 2010년 2학기 5.2%, 2011년 1학기 4.9%로 점차 금리를 낮춰왔다.

또한 기존에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했던 번거로움을 행정안전부와의 전산망 전용선을 개설함으로써 없앤 데 이어, 미성년 대학생도 부모동의절차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성년의제 법안개정을 성사시켰다. 아울러, 기존에 보름가량 소요되던 소득분위 파악기간을 건강보험공단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3일까지 단축하는 등 대출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5년 연 18만여명에 불과했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010년에 연 76만여명까지 확대됐다.

지난 2010년 1학기부터는 등록금대출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유이자(구 신용불량자)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ICL)’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든든학자금’ 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소득 7분위 이하, 성적 B학점 이상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



도록 도와주고, 이후 취직을 하여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토록 하는 제도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현 정부의 교육철학과 신념이 담긴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에 학자금 직접대출제도 하에서는 대출을 받은 학생이 재학 중에도 매월 대출이자를 갚아야 했으며, 졸업 후 취업이 안되어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매년 증가해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2만5천명에 이르렀다.

신용유이자로 등록이 되면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자녀의 학자금 대출이 부모의 부채로 남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학생의 자립심도 저해되는 문제점도 초래했다.

‘든든학자금’제도는 이처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현행 학자금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하여, 단순한 학자금대출제도의 변화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재학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대출 원리금 상황이 유예되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학업과 취업활동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식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노후대비를 할 여력도 없이 가계부채의 부담을 짊어졌던 부모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학생이 졸업 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립심을 키워주고, 부모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하게 되므로 가정형편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는 악순환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처럼 좋은 취지로 출발한 든든학자금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든든학자금 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2010년 1학기에는 약 11만명이 활용하여 기대치에 다소 미치지 못했으나, 제도시행 세 학기째인 2011년 1학기에는 약 15만 3천명이 든든학자금을 이용하는 등 제도발전을 위한 노력에 부응하여 꾸준히 수요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간 든든학자금 제도의 목적과 도입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정부지원 정책자금의 금리와 비교해 높다고 느끼는 금리수준, 성적기준·소득분위 제한, 복리 이자구조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그리고 관련 부처와 한국장학재단은 금리를 4.9%까지 인하하는 등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제도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나가는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국장학재단은 대출신청 프로세스를 보다 간편화하여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많은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노력 및 대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것이다.

Ⅲ. ‘국가 장학금 지원사업’의 현재와 미래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학자금지원 통합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 학자금대출제도 뿐만 아니라, 총 11가지의 국가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장학금제도는 크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need-based 장학금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merit-based 장학금으로 구분할 수 있

다. 2011년 기준으로 총 11개 장학제도를 통해 연간 약 13만 6천여명에게 5,300여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1학기부터는 1천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인 '우수드림 장학금제도'와 전문대 학생들을 위한 '전문대 성적우수 장학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간 장학혜택에서 소외됐던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또한, 2010년부터는 국가장학금이 대학의 등록금 납부시기보다 1~3개월 뒤에 지급됨에 따른 장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을 등록금에서 우선 감면한 후 고지서를 발급하는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 장학생들은 장학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지인을 통해 빌려서 등록금을 선납부한 후 장학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상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등록금 우선감면 장학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러한 장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약 18억원의 대출이자 절감효과, 제출서류 생략 및 교통비용 절감 등으로 약 2억원의 부대비용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장학제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우수학생을 선발, 육성지원함으로써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재단은 학생들이 더욱 편리하고 공정하게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공정한 심사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가 재산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수익률이 좋은 투자다. 크게 보면 잘하는 학생들을 더욱 잘하게 장려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로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기회의 불균형 때문에 경제적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나가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전체적으로 '인재육성 지원'이라는 최종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맞춤형 장학지원체계를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모든 학자금지원 관련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 시스템의 구축과, 집을 떠나 타향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주거 애로사항을 돕기 위한 대학생 기숙사 복지사업도 새롭게 추진 중이다.

특히 전국의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정부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또는 무상장학금제도는 전체적

인 파악이 어려울 만큼 다양하다. 수혜대상인 대학생들도 정보의 홍수 속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학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여건의 학생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기획중인 '원스톱 플랫폼 시스템'은 이러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스템이다.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다 담아내긴 어렵겠지만, 첫 단계로 우리 재단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전국 400여개 대학 및 지자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학자금지원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개시하면, 학자금지원 제도를 운영중인 여타 기관들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



해울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성적, 경제여건 등 자신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수혜 가능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정보를 윈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학자금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

IV. 봉사의 미덕을 갖춘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국가인재육성지원사업’ 추진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이 지식과 사회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사회에 공헌할 줄 알고 봉사의 미덕을 갖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국가인재육성지원사업’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인재육성지원사업’은 크게 사회지도자급 멘토링(한국인재 멘토링 네트워크, Korment)과 대학생 지식봉사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멘토링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010년 2학기부터 시행되어 올해 제2기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한국인재 멘토링 프로그램’은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후배세대를 양성하는 데 힘을 보태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많은 기회의 바탕 위에 최고의 자리까지 성공한 분들이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 인재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스스로 받았던 유무형의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기업 최고경영자(CEO), 석학, 언론인 등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 200명이 대학생 2,000여명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가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의 초·중·고교생에게 진로상담, 학습지도 등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생 지식봉사 프로그램>도 강원대, 광주과기원,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과기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등 23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들 23개 대학에 재학중인 국가장학생 등 우수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대학 이외의 대학과도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멘토링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학습진도 따라잡기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언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전국 교원양성 및 다문화화강좌개설 대학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대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능력과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역할을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근로장학금을 수혜받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2010년에 전국 13개 교육양성 및 사범대학이 한국장학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335명의 멘토가 2,335명의 멘티에게 멘토링 활동을 수행하였고, 현재 2011년 다문화가정 멘토링 활동을 위한 참여 대학을 추가 선정중에 있다.

이러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인재육성지원사업’은 이제 그 첫걸음을 댄 단계이지만, 지식과 능력 위주의 고등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완하는 인재육성지원프로그램의 출발이라는 점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폭넓은 사회공헌을 시도한다는 점, 그리고 ‘학자금지원’과 더불어 ‘봉사의 미덕을 갖춘 인재육성 지원’의 통합된 체계를 구축한다는 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 재단이 현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대학생 복지에 관련된 것이다. 집을 떠나 타향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등록금 외에도

주거비, 식사비 등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단순히 등록금 지원만으로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학생복지사업도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V. 한국판 TFA를 향해

최근 미국 명문대 졸업생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빈민가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TFA(Teach for America)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외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TFA는 대학 졸업생들이 교원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2년간 미국 각지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배치돼 2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대학졸업생들이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단기간동안 적은 급여를 받고 빈민가 등 공립학교에 배치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회적·공적 루트'로 미국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꿈과 지식을 전수해주어, '가난'을 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과 더불어 '봉사의 미덕을 갖춘 인재육성 지원'의 통합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국판 TFA, 즉 Teach for Korea(TFK)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 확대와 체계화를 토대로, 우수한 국가장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며, 이들 모



두가 사회에 감사한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한국장학재단이 꿈꾸는 한국판 TFA의 근간이다.

얼마전 '정부 학자금지원 수기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의 글이 기억난다. "국가 장학금 혜택이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멘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자로서, 국가 인재육성 학자금지원기관의 이사장으로서 이보다 더한 보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라난 학생은 분명 자부심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 모든 임직원은 우리나라 미래인재들이 장차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갈 세계적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나갈 것이다. 체계적인 학자금지원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장차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섬기는 리더십과 봉사의 미덕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인재강국 대한민국의 <국가 인재육성 학자금지원기관>이 나아가야할 길이 아닐까 여겨진다.✎





STEAM 교육의 추진과 과제

글_ 서예원 |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연구위원

I. 서론

“...이런 컨버전스나 통섭이란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공계 출신들이 과학적인 사고 혹은 과학을 공부했으니까 이것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고등학교 때 그런 기반이 안 다져져 있고, 대학 가면 인문학이나 여러 가지를 잘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또 아니거든요. 교육이 이공계 교육을 잘 시키는 반면에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소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학가서도 채워지지 않고... 그 인문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중요한데 이 부분이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보면 그런 교육을 받아온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아이들 이랑 마지막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학생 인터뷰, Ecole Polytechnique & Paris 7, 3학년 재학 중)

위의 인터뷰는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가 실시한 2010년도 과학기술인재 학업 및 실태 분석연구(김미숙 외, 2010)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다. 이 인터뷰는 미래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우리 교육이 부족한 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명박정부가 국가혁신체제의 기본을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으로 선포한 이래(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08),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들을 제시하여 왔다. 이

중 특히 2010년 12월 발표된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이라는 대통령업무보고서에서는(교육과학기술부, 2010)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6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초·중등 수준에서 STEAM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제는 최근 수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제2차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계획서에서는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개선 및 지원 전략을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예술 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편방향 등 미래형 STEAM교육 강화에서 찾고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국가적 차원에서 STEAM이라는 새로운 통합적 교육을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적 맥락속에서 미래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핵심역량과 무관하지 않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속에서 기존의 상식과 통념을 깨는 창의적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서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구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학문을 연결시키고 통합시켜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의사소통, 협동, 새로운 지식 창조를 위해 정보에 접근하는 테크놀로지 사용능력 등이 새로운 기본기가 되고 있는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번영과 발전의 핵심이 더욱더 새롭고 유용한 지식의 생성에 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 최첨단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적, 사회적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교육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II. STEAM교육이란? : STEM에서 STEAM으로

STEAM은 과학기술분야의 교육을 위한 STEM교육에 A, 즉 ‘예술(Arts)’를 추가한 것이다. STEAM이란 즉,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이러한 다섯가지 전통적 학문영역들의 통합적 구조화를 시도하는 교육학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Yakman, 2010). 이 용어는 아직 학문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미국의 Yakman이 2006년 Virginia Polytechnic and State University에서 진행되었던 ISTEMed(Integrated 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s Educational Program) 프로그램에서 석사논문을 발표하면서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EAM교육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STEM교육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데, STEM이 비록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는 교육접근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미국의 맥락에서 STEM교육의 배경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미국에서 과학과 기술분야의 국가적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7년 소련의 Sputnik 호 성공 이후였다. 미국은 그러한 노력을 통해 과학과 기술분야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으며,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에 역점을 두어 이 분야, 즉 STEM을 증진시키고자 국가적으로 연

구와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그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줄어들고 현실에 안주하다가 최근 국제적 경쟁이 강화되면서 STEM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했다(National Science Board, 2010). 특히, 2002년 부시 행정부의 NCLB(No Child Left Behind) 교육정책이 수립된 이후에 STEM은 가장 주목받는 교육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 부시행정부는 미국 경쟁법안 발의(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를 선언하고 STEM분야의 교육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다음해인 2007년에 발표된 'Rising Above the Gathering Storm(National Academies, 2007)'에 의해 더욱 힘을 얻게 되는데, 이 보고서는 젊은이들을 과학 및 공학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분야로 유입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미래 번영을 결정짓는 핵심이며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유지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부시행정부는 같은 해에 미국 경쟁법(American Competes Act)을 통과시켰으며, 수학 및 과학분야의 교육증진과 교육과정 정비에 2억7천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였다(Eger, 2008). 결국 이 법은 STEM교육에 정부의 예산을 늘리도록 기여했으며, 2009년 국가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는 오바마행정부에 STEM교육을 증진시키고 대중의 과학적 소양과 21세기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National Science Board, 2010).

“ STEAM은 과학기술분야의 교육을 위한 STEM 교육에 A, 즉 '예술(Arts)'을 추가한 것이다. STEAM이란 즉,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이러한 다섯 가지 전통적 학문영역들의 통합적 구조화를 시도하는 교육학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Yakman, 2010). ”

STEM교육은 처음으로 그 개념이 대두될 당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들을 일컫는 용어로 각 학문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STEM 관련 학문들 간의 통합과 연계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술적 소양을 위한 기준(The Standards for Technological Literacy)'은 STEM교과들 간의 능동적 연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공학 인증 프로그램을 위한 준거(The Criteria for Accrediting Engineering Programs)' 역시 공학교육적 측면에서 과학과 수학의 통합적 적용에 주목하고 있다(이효녕, 2011).

그러나 STEM교육의 중요성과 STEM을 구성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들에 대한 통합적 교육접근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STEM교육에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인력을 육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결정적 요소, 즉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이 실종되어 있음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Huffingtonpost, 2010). 따라서 STEM교육에 예술



(Arts)을 포함하여 STEM 교육이 추구하는 과학기술중심 교육에 예술적 상상력과 감성을 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고 최근 STEAM교육은 STEAM교육으로의 변화, 발전을 이루고 있다.

Ⅲ. 우리나라 STEAM교육 추진 배경

STEAM교육은 기존의 STEM교육에 새로운 요소인 예술(Arts)을 덧붙인 통합적 교육접근임을 앞서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새롭고, 심지어는 생소하기까지 한 STEAM교육을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데에는 과거에 행해졌던 교육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미래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간 우리 교육 정부는 지나치게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 중심으로만 변화해왔다. 실제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수업현장의 변화는 거의 없다 보니 정책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다지 달라지는 것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내용, 교육방법, 평가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커리큘럼은 종합분석 사고력, 고도의 사고력, 즉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과제 중심으로 바뀌야 하고 교수방식도 해결방안을 묻고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티칭으로 변화해야 하며 평가도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는지와 문제인식력, 문제해결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인터뷰, 2011)

위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사회 대량생산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미래 지식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는 문제가 있어왔다. 기존 교육과정에서 과학과 수학의 지식과 개념은 상호간의 연결고리 없이 대부분 분절적으로 제시되었으며 학교수업은 학습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통합적 이해보다는 암기위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특출한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분야의 학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그러한 결과로 최근 실시된 2009 PISA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전체 조사대상 57개국 중 55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한겨레 신문, 2011. 1. 21). 이러한 현실은 정부가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초중등 STEAM교육의 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교육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STEAM교육에 관해 우리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21세기 미래사회의 특성이다. 20세기까지 노동력과 규모,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경성재화(hard power)가 중요했다면 21세기는 창의성과 소통을 중심으로 한 연성재화(soft power)가 중요시되는 사회이다(Joseph Nye, 2004).

미국의 경우,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능력을 '4C: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력), Communication(의사소통능력), Collaboration(협동능력), Creativity(창의성)'으로 규정하고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09),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과학교육분야에서 STEAM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 예술은 과연 다른 어떤 인간의 정신영역보다 도전성과 혁신적 사고를 중시하는 분야로서, Root-Bernstein(1999)에 의하면 과학과 예술적 사고가 통합될 때 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과학자가 길러질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창조적인 과학자들이 높은 수준의 예술교육을 받았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며(Catterall, Chapleau, & Inwanaga, 1999), STEM에 예술을 결합한 STEAM교육은 과학기술분야 학문의 합리적, 논리적 특성과 예술의 혁신적 특성을 접목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학생들의 잠재적인 창의성을 발현, 발달시키는 것이 국가의 경제적 부는 물론 사회통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그에 관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 1999). 덴마크의 미래학자 톨프 옌센은 인간사회는 궁극적으로 '꿈의 사회(dream society)'로 진보할 것이라고 예측한다(Jensen, 2005). 그는 꿈을 토대로 한 미래사회에서 새로운 원동력은 정보보다는 이미지와 콘텐츠가 될 것이며, 인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이야기(narrative), 새로운 꿈을 만들고 표현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21세기 미래 사회적 특징과 관련된 인재의 핵심역량 측면을 고려해보면, 지식의 심화된 이해와 더불어 새롭고 독창적으로 연관성을 창조하는 능력은 더욱 큰 가치를 지니며 그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있으며, STEAM교육은 기존의 교과중심 과학교육의 한계를 넘어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유용한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IV. STEAM 교육 추진을 위한 과제

STEAM에서 과학기술분야의 교육에 덧붙여진 A(Arts)는 예술을 의미한다. 학교교육에서 예술과 관련된 교육이라 하면 흔히 음악과 미술 과목 또는 이와 체육(무용 등 신체활동)을 포함한 것을 떠올리게 된다. 그렇다면 초·중·등 수준에서의 STEAM교육은 복잡하고 난해한 과학 관련 과목에, 예체능의 흥미롭고 활동적인 부분을 결합하여 보다 쉽고 재미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예술은 과연 다른 어떤 인간의 정신영역보다 도전성과 혁신적 사고를 중시하는 분야로서, Root-Bernstein(1999)에 의하면 과학과 예술적 사고가 통합될 때 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과학자가 길러질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창조적인 과학자들이 높은 수준의 예술교육을 받았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며(Catterall, Chapleau, & Inwanaga, 1999), STEM에 예술을 결합한 STEAM교육은 과학기술분야 학문의 합리적, 논리적 특성과 예술의 혁신적 특성을 접목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데 기

“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내용, 교육방법, 평가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커리큘럼은 종합분석 사고력, 고도의 사고력, 즉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과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교수방식도 해결방안을 묻고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티칭으로 변화해야 하며 평가도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는지와 문제인식력, 문제해결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



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예술’의 개념과 관련하여 조금 더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리말로 ‘예술’이라 지칭했던 Arts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술보다는 훨씬 확장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예술의 구성요소 (Yakman, 2010)

Arts	Lang age arts(언어과목, 어학): 의사소통과 관련된 학문 Fine arts(미술): 회화, 조각 등 미술분야 Physical arts(신체 예술): 스포츠, 댄스, 행위예술 등 Manual arts(조작 예술): 사물의 조작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기술이나 테크닉과 관련 Liberal arts(인문학): 사회학, 철학, 심리학, 신학, 역사, 정치학 등 사회과학 포함
------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술에는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비롯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구성해나가는 예술, 인문, 사회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기능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사실, 기존의 STEM교육이 그 교육적 내용과 기술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간 비난을 면치 못한 이유는 창의성, 독창성, 혁신 등을 가져오는 기본교육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표 2〉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분야 학문의 특성

과학, 기술	인문, 사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what we can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what we should do)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답 추구	모호함, 의문, 회의성 등을 다룸 - 복잡다양하고 혼란스러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토대

〈표 2〉에서 비교된 바와 같이, 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지식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인문 사회 지식은 소통능력, 비판능력, 윤리의식 등 인간의 삶과 연관된 가치추구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STEM교육에서 소홀히 해왔던 인문사회 교육은 ‘남과는 다른 생각’, 즉 창의력의 토대가 되며 배려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강인규, 2010). 이는 인간을 현명하고, 사려 깊고, 겸허하게 할 뿐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꽃피우게 하여 민주시민사회를 이룩하는 토대를 만듦으로써(Finn & Ravitch, 2007),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자양분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문사회 관련 학문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비실

용적이라는 이유로 그 가치가 추락하며 위기를 맞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NCLB 입법 이후, 문학, 미술, 음악, 역사, 윤리, 지리 등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학교의 절반가량이 그러한 과목시간을 축소시켜왔다. 이 같은 현실을 두고, 초기 부시행정부의 교육부 차관보였던 Chester E. Finn Jr.와 Diane Ravitch는 21세기를 맞이하는 미국의 진정한 경쟁력에 대한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Finn & Ravitch, 2007).

오늘날, 창의적 과학기술인재의 대명사로 불리는 애플사의 Steve Jobs가 소개한 아이패드는 단지 기존의 테크놀로지를 기술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니다. 이는 미국사람들의 생활방식, 요구, 취향, 수용력 등에 대한 철저한 탐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다. Jobs가 처음으로 아이패드를 소개하면서 '애플은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는 교차로에 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무한한 예술적 상상력과 감성, 특정분야에 얽매이지 않는 폭넓은 교양과 고차원적 사고력이 융합된 과학기술 교육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STEAM 교육의 본질이다. <표 3>은 STEAM을 구성하고 있는 학문영역과 각 학문의 의미,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하위학문, 영역, 기능을 기술하고 있다.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STEAM교육의 요소 중 하나인 예술의 범위를 인간의 보편적 교양에 관한 학문으로까지 확장시킬 때, STEAM은 단순히 STEM의 효율적 학습을



“ 애플사의 Steve Jobs가 소개한 아이패드는 단지 기존의 테크놀로지를 기술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니다. 이는 미국사람들의 생활방식, 요구, 취향, 수용력 등에 대한 철저한 탐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다. Jobs가 처음으로 아이패드를 소개하면서 '애플은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는 교차로에 늘 존재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

〈표 3〉 STEAM의 내용(Yakman, 2010 참조)

학문영역	의 미	관련 학문, 영역 또는 기능
Science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것	물리(Physics), 생물(Biology), 화학(Chemistry), 지구과학(Geoscience), 우주과학 및 생화학(Space Science & Biochemistry), 생명공학 및 생체의학(Biotechnology & Biomedical)
Technology	인간이 창조한 것에 관한 것	기술의 본성(Nature of Technology), 기술과 사회(Technology and Society), 디자인(Design), 기술세계를 위한 능력(Abilities for a Technological World), 고안된 세계(The Designed World—Medical, Agriculture & Biotechnology, Construction, Manufacturing, Information & Communication, Transportation, Power & Energy, 포함)
Engineering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Technology)을 이용해 수학과 과학을 토대로 창의성과 논리적 사고를 이용하는 것	항공우주산업(Aerospace), 건축(Architectural), 농업(Agricultural), 화학(Chemical), 토목(Civil), 컴퓨터(Computer), 전기(Electrical), 환경(Environmental), 유동체(Fluid), 산업(Industrial) 시스템, 재료(Material), 광산(Mining), 조선공학(Naval Architectural), 핵(Nuclear), 해양(Ocean)
Mathematics	사물을 계산, 측정, 기술하는 경험으로부터 그 구조, 순서, 관계 등을 다루는 과학	수와 연산(Numbers and Operations), 대수(Algebra), 기하학(Geometry), 측정(Measurement), 데이터 분석 및 확률(Data Analysis & Probability), 문제해결(Problem Solving), 추론과 증명(Reasoning & Proof), 의사소통(Communication—Trigonometry, Calculus & Theory 포함)
Arts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영향을 미치며, 그 사고방식과 관습을 통해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하고 소통하는가에 관한 것	신체(Physical), 미술(Fine), Manual(조작), 어학(Language), 인문학(Liberal—Sociology, Education, Politics, Philosophy, Theology, Psychology, History 등 포함)

위한 흥미유발 차원의 교육이 아닌 학문간의 광범위한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과학교육 모델로서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STEAM교육의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STEAM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학문들의 핵심개념과 기술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이들의 통합 또는 융합을 꾀함으로써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일일 것이다.

V. 결론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은 특유의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TIMSS, PISA와 같은 학생들의 국제학력비교에서도 최상위 수준을 차지하며 높은 성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가 과연 깊이 있는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윤리적인 리더십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분야의 교육은 해당 학문에 대한 학습역량을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며, 과학을 비롯한 예술,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사고를 통해 창의성을 발현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듯하다.

최근 우리 정부가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있어 예술과 인문사회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중등 단계에서 STEAM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꼭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STEAM정책이 교육현장에 추진, 적용되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부터 이를 지원하는 법, 제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의 특성과 수준에 알맞은 새로운 STEAM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전문성 있는 교사를 확보하고 교육해야 하며, 적절한 시간과 공간을 보유하고 흥미로운 교수방법과 자료를 개발하는 등 STEAM교육 실시를 위한 다양한 현실적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STEAM교육에 적합한 평가방식으로서의 개선은 물론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미시적 관점에서의 ‘교실 내의 변화’와 거시적 관점에서의 ‘행, 재정적 지원’이 병행될 때 STEAM교육의 내실화와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STEAM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추진한다면 이 정책의 실효성은 커녕, 오히려 과학기술분야와 예술분야의 심화된 학습마저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단순한 흥미위주의 표면적 통합교육으로는 STEAM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STEAM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학문의 개념적 이해로부터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거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STEAM 교육을 막 도입하려고 하는 현시점에서 STEAM교육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이를 실행할 관련인들이 그에 대한 동일한 생각과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인규(2010). 우리는 '이런 거' 왜 못 만드냐고? 오마이뉴스. (2010. 5. 1)
- 2)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2010.12.17)
- 3)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8). 국가교육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전략. (2008. 10. 29)
- 4) 김미숙, 이희현, 서예원, 최경희, 최영기, 김일(2010). 청장년시기(15세~45세) 과학기술인재 발달 및 육성 종합전략 연구 II: 과학고등학교 입학자의 학업 및 진로 실태 분석. 연구보고 RR2010-1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5) 김영섭(2011). 한국학생 과학흥미도 57개국 중 55위. 한겨레신문. (2011. 1. 21)
- 6) 김태완(2011).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인터뷰. 한국대학신문 782호.
- 7) 이효녕(2011). STEAM 교육 시행을 위한 미국의 STEM 교육 고찰. 조선일보 기고문. (2011. 2. 25)
- 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2011). 제2차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
- 9) Catterall, J. S., Chapleau, R., & Iwanaga, J. (1999). Involvement in the arts and human development: General involvement and intensive involvement in music and theater arts. In E. B. Fiske (Ed), *Champions of change: The impact of the arts on learning*(pp. 1-18). Washington, DC: Arts Education Partnership,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the Humanities.
- 10) Eger, J. M. (2008). The arts in contemporary education: Reinventing schools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global innovation economy. *The School Administrator*, 65(3), Retrieved from <http://www.aasa.org/SchoolAdministratorArticle.aspx?id=5958>.
- 11) Finn, Jr., C. E., & Ravitch, D. (2007). Not by geeks alone. Aug. 8, *The Wall Street Journal*.
- 12) Huffingtonpost (2010). "STEM to STEAM — Recognizing the Value of Creative Skills in the Competitiveness Debate." (2010. 10. 14)
- 13) Jensen, R. (2005). *The dream society: How the coming shift from information to imagination will transform your business*. 드림 소사이어티: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개정재판). 서정환 옮김. 서울: 한국능률협회.
- 14) Joseph Nye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Y: PublicAffairs.
- 15) National Academies (2007). *Rising above the gathering storm*.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16)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 (1999). *All our futures: 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 London: NACCCE.
- 17) National Science Board (2010). *Preparing the next generation of STEM innovators: Identifying and developing our nation's human capital*.
- 18)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09). *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 Retrieved from www.21centuryskills.org.
- 19) Root-Bernstein, R. (1999). *The sparks of genius*. 박종성 옮김. 서울: 예코의 서재
- 20) Yakman, G. (2010). *STEAM education: An overview of creating a model of integrative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www.steamedu.com>.



방과후학교의 성과와 과제

글_ 김 홍 원 | 한국교육개발원 교과교실제 연구·지원특임센터 소장, 방과후학교 연구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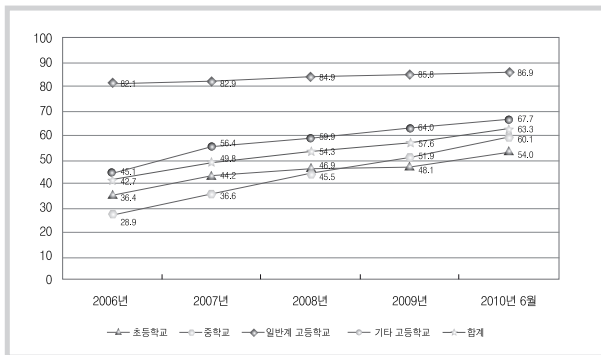
정규 교육과정 보완, 교육복지 구현, 사교육비 경감, 학교의 지역사회화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기존의 방과후교육활동의 운영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2006년부터 학교현장에서 적용된 방과후학교는 정부, 교육청,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 등에 힘입어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2010년 6월 현재 전국 초·중등학생의 63.3%가 참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주고 있다. 또 지역사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돕고, 학교가 지역사회를 도움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다.

I.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1. 학교 및 학생 참여율

2010년 6월 현재 전체 초·중·고 학생의 63.3%(4,573,385명)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가 학교현장에서 처음 적용된 2006년 이후, 2006년 42.7%, 2007년 49.8%, 2008년 54.3%, 2009년 57.6%, 2010년 6월 63.3%의 비율로 학생 참여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림 1] 연도별 참여 학생비율 변화 (2006-2010년 6월)

2. 학생 1인당 수강 강좌수 및 월 부담액

학생은 1인당 평균 3.4개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한 달에 평균 26,293원을 부담하고 있다. 전체 학생 중 66.7%가 전액 부담, 8.0%는 일부 부담, 그리고 25.2%는 전액 무료로 참여하고 있다.

3. 프로그램 운영현황

초·중등학교에서 총 494,965개의 강좌가 운영되었다. 이 중 31.5%는 특기·적성 강좌이며, 68.5%는 교과 관련 강좌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수학 관련이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영어관련 17.5%, 국어관련 14.5%로 나타났다.

<표 1>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단위 : %)											
	국어 관련	사회 관련	수학 관련	과학 관련	영어 관련	제2외국어 관련	컴퓨터 관련	음악 관련	미술 관련	체육 관련	기타	계
총계	14.5	10.6	17.8	12.1	17.5	1.4	6.3	5.2	4.3	4.5	5.9	100.0

4. 토요 휴업일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주말 프로그램은 맞벌이부부 자녀, 저소득층 자녀, 농·산·어촌지역의 학생들에게 주말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토요 휴업일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 중, 고등학교는 2,165개이며, 이는 전체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의 19.3%에 해당한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중

의 2.9%가 참여하였다. 방학 중에는 전체 학교의 83.4%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며,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중의 82.5%가 참여하였다.

5. 외부위탁 프로그램

비영리기관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학교는 926개, 영리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학교는 2,064개(컴퓨터 포함)이다. 참여학생 수는 각각 138,107명, 493,396명이었다. 2009년에 비해 위탁기관 수와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6. 강사현황

2010년 6월 현재 총 274,842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 중 67.2%(184,831명)는 현직교사이며, 32.8%(90,911명)는 외부강사이다. 특기·적성 강좌에 참여하는 전체 강사 중 외부강사는 69.2%(68,588명), 현직교사는 30.8%(30,522명)이었다. 반면 교과강좌에서는 현직교사가 87.8%(154,309명), 외부강사는 12.2%(21,423명)를 차지하였다. 2009년도 10월에 비해 전체 강사 수는 55,685명이 늘었다.

<표 2> 강사현황

구분	(단위 : 명(%))		
	현직 교사	외부 강사	총계
특기·적성 강좌	30,522(30.8)	68,588(69.2)	99,110(100.0)
교과 강좌	154,309(87.8)	21,423(12.2)	175,732(100.0)
전체	184,831(67.2)	90,011(32.8)	274,84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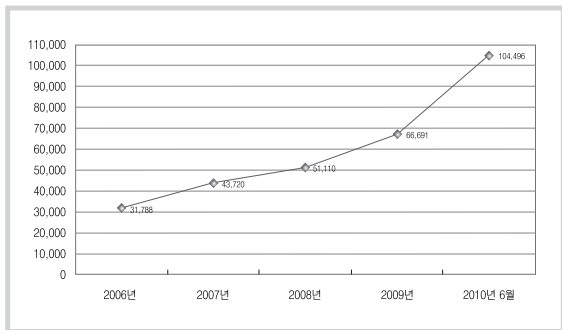
7.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제 운영현황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중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66.2%였으며, 이 중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방과후학교 업무만 전담하는 부장교사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32.4%였다.

8.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사업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2010년 6월 현재

5,117개교이며, 이는 전국 초등학교의 87.4%이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은 총 104,496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3.2%이다.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유형을 보면, 맞벌이 가정자녀 62.3%,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의 12.7%로 나타났다. 수강료 부담유형을 보면, 전체의 65.2%가 전액 무료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액 부담은 27.0%, 일부 부담은 7.8%로 나타났다. 돌봄교실 수강료를 내는 학생들은 월 평균 31,178원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1,000개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아침 일찍부터(6시 30분) 저녁 밤 늦게(10시)까지 학생들을 돌보고 있다.



[그림 2]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수 변화 (2007년-2010년 6월)

9.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

2010년 6월 현재 2,803개 학교(25.0%)가 참여하고 있으며, 멘토로 참여하는 초·중·고등학생 수는 총 58,366명

이며, 이들은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다.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 수는 13,231명이며, 평균적으로 대학생 멘토 1명이 4.4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방과후학교 성과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방과후학교의 성과를 방과후학교의 정책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교육 기능 보완

방과후학교는 방과후에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과 보충 및 심화 학습을 돕고, 특기적성을 계발하며,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있다. 2010년 6월 현재 494,96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교과 프로그램은 338,891개,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56,074개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준별 보충 및 심화학습을 하고, 특기적성을 계발하며, 인성을 함양한다.

제시되는 <표 3>은 2010년 6월에 방과후학교 온라인 현황조사시스템을 이용해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방과후학교 온라인 현황조사에 참여한 전국 11,226개의 초중등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



시범 도입된 교과교실제는 교과교실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 수준에 따라 크게 선진형, 과목중점형(수학, 과학중점형과 영어중점형), 수준별 수업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교과교실제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가 해당 학교 교원들의 동의를 받아 시·도교육청에 신청면, 심사를 거쳐 교과부가 시범학교로 최종 선정하였다.



학년 학생의 학부모 596,351명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만족도 조사결과이다. 5점 만점에 만족도 수치는 문항별로 3.63~3.81점에 위치하고 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2.6~76.2점이다.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7.5~66.0%이고,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0~17.2%이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훨씬 많다.

〈표 3〉 수요자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학부모)
(단위 %)

문항	평균	불만족	보통	만족
운영 전반 만족도	3.78	9.0	26.4	64.6
특기적성 개발	3.69	12.2	27.9	59.9
학업 실력 향상	3.65	12.1	30.4	57.5
사교육비 경감	3.65	14.7	26.3	59.0
지속적 참여	3.81	10.5	23.5	66.0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9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으며, 지각·결석과 같은 문제행동을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학교생활 개선(교우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 개선, 수업 방해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 한국교육개발원의 2010 조사결과에 의하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미참여학생들에 비해 향후 학습성취를 더 잘하고, 특기적성도 더 잘 개발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도 높았다. 학교, 교육청, 지역의 노력으로 학업 성적 향상, 학습부진아 치유 등 학업성취도에서 많은 개선을 보인 학교들의 우수사례가 여론에 보도되고 있다.

2. 교육복지 구현

방과후학교는 소외계층 및 지역의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교육적인 장소에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

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계층 및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2010년에는 39만명의 도시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20%) 학생들에게 연간 30만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제공하였다. 2011년에는 48만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40%)의 학생들에게 연간 36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게 하는데, 2010년에는 16,210개의 학급에 학급당 연간 2,596,000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17,162개의 학급에 3,000,000원을 지원한다. 한편,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대상이 되는 대학생 멘토링사업의 혜택을 받는 학생은 2010년 6월 현재 58,366명이다. 이들은 모두 무료로 주당 평균 2회 2시간씩 대학생들의 개인지도(학업지도, 생활지도 등)를 받는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2010년 6월 현재 총 104,496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전액 무료 학생이 65.2%이며, 일부 부담 학생이 7.8%다. 토요일업일과 방학 중의 방과후학교 운영도 교육복지에 도움이 된다. 토요일업일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132,725명이며,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3,774,228명이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전체 학생(4,573,262명) 중 전액 무료 학생이 25.2%(1,154,612명)이고, 일부 부담 학생이 8%(367,542명)이다.

농산어촌 지역에 있으면서 내실화된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폐교 직전의 학교를 되살리고, 농촌인구 이탈을 방지하며 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을 일으킨 학교 사례들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3. 사교육비 경감

최근 사교육비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10년도에 사교육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12%이던 총 사교육비 증가율이 '09년도에 3%대로 둔화되었으며, '10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교

육비 조사 결과, 총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각각 3.5%, 0.8%씩 감소하였다.

- 총 사교육비 : ('09) 21.6조원 → ('10) 20.9조원 <3.5% 감소>
- 1인당 사교육비 : ('09) 24.2만원 → ('10) 24만원 <0.8% 감소>

'09년 통계청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 참가가정이 비참여 가정보다 연간 53만원 정도 사교육비를 절감하였으며, '10년도 조사자료에 의하면, 연간 51만원정도 사교육비를 절감하였다. 2009년에 실시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과후학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방과후학교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학생과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 경감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실시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교육 참여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거나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4. 학교의 지역사회화

학교의 지역사회화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관계를 맺어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방과후학교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및 단체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현재 지역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방과후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많은 구청이나 시청과 같은 지자체, 기업, 연구소, 문화단체, 대학, 군부대, 일반시민단체 등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인적·물적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질 높은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부터 10개 지자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의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는데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6월에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학교는 4,226개였고, 10개교 중 3.8개교가 지원을 받았다. 지자체 이외에 학교를 지원한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의 수는 4,169개이고, 10개교당 3.7개교가 지원을 받았다. 교육청 이외에 외부로 지원받은 금액은 796억 정도로 나타났으며, 1개교 당 7백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성과는 방과후학교가 교육은 학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할 때 더욱 잘 수행될 수 있다는 인식과 책임감을 지역사회에 심어주고 있으며,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이 1:1 협력관계를 맺는 「1교1사 운동」을 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방과후학교에 귀가하는 학생들을 위해 버스가 노선을 변경해주고, 어떤 청년단체에서는 방과후 야간귀가 지도를 해주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는 협력체제를 갖추고 기쁨과 보람도 함께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벽의 높이를 낮추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상호 발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Ⅲ. 방과후학교의 발전과제

방과후학교는 '학교교육 기능 보완', '교육복지 구현', '사교육비 경감', '학교의 지역사회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오고 있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과후학교는 여성인력 활용, 방과후학교 강사나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농산어촌 학교교육 활성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방과후학교가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방과후학교는 수요자가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료를 부담하고 듣기 때문에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편성하고 사교육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질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교과영역과 특기적성영역 프로그램에서 개인 맞춤형 수준별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을 교사나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 만족도를 조사하여 지도강사에게 피드백 해주고, 수업의 질에 따라 지도강사에게 적합한 보상을 해주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2. 우수강사 양성·확보·제공 체제 구축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 등 방과후학교 지도강사 연수과정을 체계화하여, 과정별로 지도내용과 지도방법, 지도강사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별로 방과후학교 지도강사 연수과정이나 체계가 매우 상이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지도강사에 대한 연수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우수강사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우수강사를 인증하는 체제를 구축한 다음, 우수강사 인적풀을 구축하여 여러 학교나 지역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필요한 강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보조를 통한 강사료 인상, 농산어촌지역에서의 방과후학교 강사경력을 대학의 학점 및 교원임용과정에서의 인정, 퇴직교원과 같은 지역자원봉사자의 적극 활용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농산어촌지역에서의 강사를 확보해야 한다.

3. 지역사회 자원 활용 체제 구축

방과후학교는 국가, 교육청, 학교의 자원만을 가지고는 만족스럽게 수행될 수 없으며,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 인사가 참여해야 만족스럽게 운영될 수 있다. 지역사회는 재정지원, 시설이나 장비지원, 인력지원, 이동수단 지원, 정보 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과후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의 유관 기관이나 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지역방과후학교운영협의회 운영, 지자체의 방과후학교 지원 조례 제정, 지역 사회적 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있는 비영리기관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영리기관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영리기관이나 단체는 영역별로 매우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4.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부담 경감

방과후학교 업무는 많고, 저녁 늦게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특히 교장, 교감, 방과후학교 담당 부장교사와 교사)의 업무부담이 크다. 교사가 방과후학교에 늦게까지 참여하는 경우, 정규수업 준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부모코디네이터, 방과후학교장(부산지역) 등의 제도를 통해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방과후학교 학교장, 외부기관의 방과후학교 전체 위탁운영,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위탁운영 등과 같은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따라 교원 수를 줄이지 말고,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스웨덴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맡는 교원과 방과후학교(초등학교 3년까지)를 담당하는 교원을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고 있다.

5.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활성화

외국의 방과후학교 활동의 경우, 교과 프로그램보다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더 중요시된다. 많은 학생들은 체육, 음악, 미술 활동 등과 같이 체력과 인성, 예술성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과 프로그램의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방과후학교에서의 예체능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문화체육관광부의 예체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연합방과후학교 지원 등), 아직 많은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에서의 예체능 및 체험학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학생들이 건강한 체력, 건전한 인성, 심미성 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의 행복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볼 때 이 는 매우 필요하다.

6.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

지난 정부 때부터 의원발의를 통해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많은 국가와 지역의 재정 및 수요자의 수강료가 투입되고 있으며, 많은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방과후학교가 관련기관이나 단체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 미비는 방과후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후속 제도(지자체의 지원 근거화, 지역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방과후학교 업무지원 전문인력 배치, 방과후학교 관련 연구사업 재원 확대, 국가와 지역의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 확대 및 관련 지원조직 설치 등)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ㄷ





수도권 첫 다문화학교 '지구촌국제학교'

글_ 황 세 원 | 국민일보 기자

몇년 전 TV 프로그램 '인간극장'에 '흑진주 삼남매'로 소개된 아이들이 있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만 자라 온 삼남매는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입는 모든 면에서 한국사람이다. 다만 피부색과 생김새가 좀 다를 뿐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삼남매는 얼마 전 엄마를 잃었지만 아빠와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시청자들은 큰 호응과 격려를 보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여 후, 이 아이들의 아빠마저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들려왔다. 안 그래도 녹록치 않았을 이 아이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대로 수렁으로 빠져들어 밑바닥 인생, 또는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만이 이 사회가 정해 둔 냉혹한 미래일까.

다행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곳이 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가진 약점을 최고의 강점으로 바꿔 이들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인재로 키우겠다"고 발 벗고 나선 곳이 있다. 서울 오류동의 지구촌국제학교다.

선진국학교 옮겨온 듯... 다중언어교육 · 수준별 맞춤학습

아직 쌀쌀한데다 안개까지 자욱이 깔던 지난 4월 18일, 지구촌국제학교를 찾았을 때 한참을 헤멜 수밖에 없었다. 학교라기보다는 예식장을 떠오르게 하는 6층 건물에는 아무 간판도 붙어 있지 않았다. 건물 바로 앞에는 낡은 철길이 지나고, '멈춤'이라고 쓰인 건널목 표지가 학교 바로 앞에 떡하니 세워져 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 함께 모여 있는 느낌이었다. "여기 들어 오려면 낡은 생각은 잠시 멈추라"는 메시지도 전해져 온다. 어찌 보면 이 학교의 특성과 딱 어울리는 풍경이다.

안에 들어서자 판 세상이다. 한 반에 많아야 여남은 명인 밝고 아기자기한 교실, 대형 LCD 모니터 등 첨단 기자재, 빈 공간마다 세계 각국 지도와 사진, 언어 표현이 붙어 있는 내부는 어느

선진국 학교를 옮겨온 듯 하다.

교육내용을 들어보면 더 놀라게 된다. 학생 26명에 교사가 32명. 3개 국어 이상의 다중언어 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지도하는 예체능 수업, 수준별 맞춤 학습에 적성에 따른 선택 수업까지. 학부모들이 “어지간히 비싸도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다”고 생각할 만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학교는 수업료는 물론 통학버스와 급식, 학용품, 준비물까지 무상이다.

이쯤 되면 열흘 밤 줄을 서서라도 입학상담을 받겠다는 학부모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학교는 아무나 받지 않는다. ‘역전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만을 받는다.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대표 김해성 목사)이 설립한 이 학교는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을 위한 사립 특성화 대안학교다. 건물에 간판이 없는 것은 정식 대안학교 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난 3월 2일 26명으로 임시 개교를 했지만 곧 인가가 나면 최대 120명까지 학생을 모집하고 교원 수도 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국적은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필리핀, 가나, 한국 등이 다. 이들은 모두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출신국가 언어까지 구사하도록 교육 받는다.

이 많은 나라의 원어민 교사를 어떻게 충당할까. 일반 교육기관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능하다. 지구촌사랑나눔 산하에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 상담소, 쉼터, 급식소, 진료소, 복지센터 등이 있고 각 기관에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이 학교에 와서 시간제 교사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학생 1명이 새로 온다고 치자. 상담소의 말레이시아 출신 직원이 바로 다음 날부터 이 쪽으로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규수업은 초등 및 중등 정교사 자격을 가진 6명의 선생님들이 맡고 있으며 김영석 교장은 서울 은수초, 계동초 교장을 지낸 은퇴 교사다.

이밖에 학교는 학생 1인당 1가지 이상 예능과 체능 맞춤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 수업은 ‘재능 기부’를 통해 이뤄진다. 이미 퇴직 교장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댄스와 악기 등을 가르치고 있다.



“ 학생 26명에 교사가 32명. 3개 국어 이상의 다중언어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지도하는 예체능수업, 수준별 맞춤학습에 적성에 따른 선택수업까지. 학부모들이 “어지간히 비싸도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다”고 생각할 만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학교는 수업료는 물론 통학버스와 급식, 학용품, 준비물까지 무상이다. ”



치명적인 약점을 최대의 장점으로 만들어

학교 안을 둘러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쉬는 시간을 맞아 삼삼오오 모여 놀이에 전념하는 아이들 모습이었다. 보드게임, 팽이치기, 공기놀이 등을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디서 들어 본 것보다도 밝았다. 가만히 보니 학년 구분 없이 섞여 노는 모습이고 이 반 저 반 다니며 개구지게

활개를 치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를 바라보던 김 교장은 흐뭇한 미소를 띠며 “편·입학식 때와는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했다. 당시 분위기는 상당히 침울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가 불법체류자여서 학교를 못 다녔거나, 이전 학교에서 따돌림과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김 교장은 “대인기피, 공격적 성향까지 보이는 아이들에 솔직히 눈앞이 캄캄했다”고 털어놓는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반이 지났을 뿐인데도 이제는 그런 ‘과거’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수업이 시작되자 2학년 ‘은빛’반 아이들은 교사와 빙 둘러 앉아 지난 주말 경험을 한국어와 각국 언어로 나눈다. 씩스러워 하는 아이는 있어도 표정이 어두운 아이는 없다. 김 교장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다름’을 장점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면서 빠르게 활기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장 김해성 목사는 “우리는 아이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를 최대의 장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포부를 전한다. 그 약점이란 일반적인 한국인과는 다른 생김새와 외국출신이라는 점을 뜻한다.

“이 아이들은 잘 키우면 앞으로 자신의 나라와 한국을 이어주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외교관들이 몇몇 선진국에만 가려고 해서 다른 나라들에 보낼 인재가 없다고 하지요.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 외에는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요. 만일 어떤 나라의 언어를 훌륭하게 구사하고, 현지인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외모를 가진 인재가 있다고 합시다. 외교부에서 특채라도 해서 기용해 파견하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의 이 같은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그 자신이 ‘가교’역할을 이미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를 해 오던 중 인연을 맺은 스리랑카 정치인이 대통령에 돼서 지난해 우리나라에 코끼리 한 쌍을 선물해 준 일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위에 언급한, 부모를 잃은 ‘흑진주 삼남매’를 입양해 돌보고 있기도 하다. 그 막내는 현재 이 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 전에도 김 목사는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 등으로 취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입양해 학교에 보내온 바 있다.

김 목사는 “다문화 어린이들이 크나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아이들을 ‘자신의 뿌리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존감 높은 사람’, ‘다중언어 전문인력’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10%는 한국학생… 통합교육 지향, 재원확보가 과제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학교들이 말하자면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는 셈인데, 다문화 학생들이 극소수이다 보니 적절한 교육과 보살핌을 받고 있지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그 비율을 거꾸로 역전시킨 통합교육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문화 학생들도 한국사회를 더 잘 배울 수 있고, 한국 학생들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다중언어능력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학교에는 한국 아이들도 다니고 있다. 앞으로 정식인가가 난 후에도 전체학생의 10% 안팎을 한국 아이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그 이유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다. 김 목사는 이 학교를 세우기 전, 교육전문가들로부터 “분리교육은 좋지 않다”는 우려를 들었다.

“저도 그 점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학교들이 말하자면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는 셈인데, 다문화 학생들이 극소수이다 보니 적절한 교육과 보살핌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그 비율을 거꾸로 역전시킨 통합교육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문화 학생들도 한국사회를 더 잘 배울 수 있고, 한국 학생들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다중언어능력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학교가 한국 아이들을 선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월 입학 설명회 때 이 학교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섰다고. 높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아이를 입학시키고 싶다는 학부모들을 모두 돌려보내느라 진땀을 뺐다는 학교의 설명에 문득 궁금증이 일었다. 그렇게 일부라도 수업료를 받으면 학교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입장은 단호하다. “일부 학생에게 수업료를 받게 되면 그 학생 위주로 학교가 운영될 수밖에 없으니 그런 가능성은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것. 어디까지나 학교의 우선순위를 다문화 어린이들에게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재학 중인 한국 학생들도 주변지역의 저소득층, 서민층 중에서 우선 선발했고, 앞으로 이 원칙은 지켜질 전망이다.



“ 이 아이들을 잘 키우면 앞으로 자신의 나라와 한국을 이어주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외교관들이 몇몇 선진국에만 가려고 해서 다른 나라들에 보낼 인재가 없다고 하지요.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 외에는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요. 만일 어떤 나라의 언어를 훌륭하게 구사하고, 현지인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외모를 가진 인재가 있다고 합시다. 외교부에서 특채라도 해서 기용해 파견하지 않겠습니까? ”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무상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확보다. 그 동안에도 솔한 후원이 답지하기는 했다. 첫 번째 기부자는 김 목사였다. 계약금이 꼭 필요할 때 마침 포스코에서 김 목사를 청암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상금 2억원을 전하기에 전액을 기부했던 것이다. 또 가수 하춘화씨는 공연 수익금 전액 1억3000여만원을 기부했다. 10억원이라는 큰 돈을 구할 길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 한 노인이 찾아와 딱 그만큼을 놓고 간 일도 있다. 올해 초 열었던 ‘후원의 밤’ 행사 때는 즉석에서 3억여 원이 약정됐다. ‘본죽’의 ‘본사랑재단’에서는 이 학교 식당에 필요한 주방 기기와 용품, 식탁 등 일체를 기부했다.

그럼에도 김 목사는 여전히 후원자를 모으느라 건강이 상해 얼마 전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의 신념은 흔들림이 없다. “이 아이들을 내버려 두면 이등 시민, 잠재적 범죄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귀하게 키우면 한국을 넘어 세계의 인재, 오바마 미국대통령 못지않은 인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다문화 어린이들이 크나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자신의 뿌리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존감 높은 사람’, ‘다중언어 전문인력’으로 키우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성장공동체 '충북청명학생교육원'



글_ 박창호 | 충북청명학생교육원 교학부장 · 교육연구사

“나는 주위로부터 그리고 나로부터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설 수 있도록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철학을 암송하면서 시작하는 청명학생교육원의 하루.

“복도에 침을 뱉으신 분은 정직하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모임에서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일깨우기가 시작된다.

“정직하게 일어나신 분께 도움말을 드리겠습니다. 복도에 침을 뱉으면 보기도 싫고, 위생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복도에 침을 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기 학생은 나쁜 학생이 아니다. 다만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가르침 보다는 따뜻한 돌봄이 더 필요하다.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를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와 수단으로 활용한다. 청명학생교육원을 ‘성장공동체’라고 이름 붙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저 함께 생활하는 정도의 공동체가 아니다. 장점을 살려 나가고, 잘못된 점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수단과 도구로써의 공동체다. ”



일깨우기와 도움말 주기가 끝나면 칭찬하기가 이어진다.

“저는 상길이를 칭찬합니다. 어제 저녁 식사시간에 물을 떠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환이를 칭찬합니다. 어제 다누리방에서 의자를 깨끗이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격려와 지지의 따뜻한 포옹, 이것이 바로 청명학생교육원에서 아침마다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이다.

장점 살려 나가고 잘못된 점 직면하게 해 함께 성장토록 도와

위기 학생은 나쁜 학생이 아니다. 다만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가르침보다는 따뜻한 돌봄이 더 필요하다.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를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와 수단으로 활용한다. 청명학생교육원을 '성장공동체'라고 이름 붙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저 함께 생활하는 정도의 공동체가 아니다. 장점을 살려 나가고, 잘못된 점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수단과 도구로써의 공동체다.

그런 공동체를 바탕으로, 청명학생교육원은 상담과 심리치유 활동을 교과활동 속에 녹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어시간에는 독서활동을 통해 작가와 주인공의 심리상태를 분석하고, 자신과 친구의 아픔이나 분노를 이야기한다.

난타를 통해서도 음악적 리듬과 함께 분노를 털어내는 방법을 배우고, 원예활동을 통해서도 미적 안목과 함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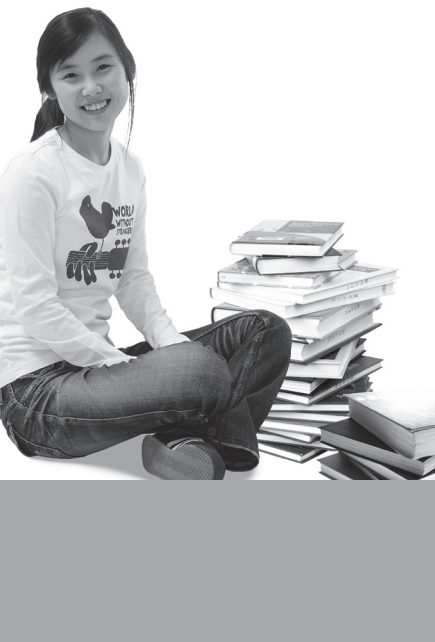
또한 잘못된 지각체계로 인해 나타나는 일탈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인지행동 수정 교과와, 무의식 속에 내재된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모래놀이 치료활동 등 전문적인 위기치유 교과활동도 함께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치유지향적 교육과정이라 부른다.

청명학생교육원의 입학자격은 중도탈락 위기 학생, 학업중단 학생, 또는 위기로 인해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이다. 대상 학령은 중학생이며 교육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학기에서 일 년 정도를 기본으로 한다. 적응력이 빠른 학생은 학교로 일찍 돌아갈 수 있지만, 느린 학생은 더 오래 머물 수도 있다. 교육인원도 최대 40명이다. 그 이상이면 위기를 치유하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록 40명이지만 이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일반학교 학생 400명이 발산하는 에너지보다 더 강렬하고 역동적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위기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배양을 위한 기관설립을 추진했던 2008년 당시만 하더라도 위기치유 기숙학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위기 학생이 '문제 학생' 또는 '나쁜 학생'이라는 따가운 시선 속에서 그들을 위한 막대한 예산투자가 과연 필요하고 정당한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2009년에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원들의 이해,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예산이 확보되어 청명학생교육원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청명학생교육원은 청명관(교육관), 우리관(생활관), 한울관(다목적강당) 등 모두 9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학교나 일반 학생교육원 건물과는 아주 다른 예쁜 가정집 같은 빨간 지붕의 건물이 맨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성장공동체 교육연구소 건물이다. 교육원 뒤쪽으로도 이와 유사한 건물이 3동 더 있는데, 이는 가족형 생활관이다.

교육연구소는 청명학생교육원의 머리라고 할 수 있다.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하며 위기를



치유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곳이다. 부모역할 훈련이나 교사역할 훈련을 지원하기도 하고,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이들에 대한 중단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친환경 황토 소재로 만들어진 가족형 생활관은 청명학생교육원의 철학을 담고 있는 건물이다. 가정해체나 가정폭력 또는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그렇지만 피해자이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2중의 고통을 겪다가 끝내는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 바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가정과 똑같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건립한 시설이다.

새로운 가정생활 통해 자존감 향상 · 가족관계능력 회복

이 곳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제2의 가족을 꾸려서 생활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가정생활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손상된 대인관계능력과 가족관계능력을 회복해 간다.

웅기중기 모여 있는 3동의 예쁜 황토집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몸짓은 놀랍게도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국 최초라는 의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위기 학생에 대한 시각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기관이 위기 학생 치유를 위해 공교육 현장으로 대안적 방법을 끌어들었다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이것은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교육 현장에서 대안교육과의 접점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육사에 커다란 한 획으로 기록될 것이다.

학생들의 주된 생활공간은 청명관과 우리관이다. 청명관은 태양열을 이용해 실내 전기와 냉난방을 공급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건물 내부에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갈 수 있도록 즉흥 공연이나 활동을 할 수 있는 ‘끼터’와 ‘꿈터’가 있고, 교실과 다목적실은 교과활동 속에서 상담과 치유활동을 녹여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무의식 속에 내재된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



“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따뜻한 돌봄이 필요하다. 청명학생교육원은 안정된 환경 속에서 공동체생활과 심리치유를 통해 흔들리고 있는 학생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기 위해 모래놀이 성장활동실, 거울의 방, 생각하는 정원, 취미활동실 등 전문적인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우리관은 공동체생활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공간이다. 1층에는 아담하고 깨끗한 식당이 있고, 2층에는 실내 정원과 함께 각종 운동기구 및 놀이기구, 그리고 노래방 시설을 갖춘 작은 무대가 있다. 3층과 4층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공동거실에서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고,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각 층마다 상담심리사와 청소년지도사가 상시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지원한다.

지금 이 곳에는 저마다 가슴 속에 품었던 상처들로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문제행동을 노출했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 앞에 노출된 이들의 문제행동이 정말 그들만의 문제였을까? 우리 어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나 책임이 없는 것일까?

그들이 보여주는 바로 그 문제행동도, 어쩌면 그들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을지 모른다. 그것이 옳았건, 옳지 않았건, 그들 스스로 터득한 일종의 생존방식!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생존방식을 알려 주어야만 한다. 그들이 터득한 방식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만 한다.

그것은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그들은 문제가 아니다. 그저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일 뿐이다.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따뜻한 돌봄이 필요하다.

청명학생교육원은 안정된 환경 속에서 공동체생활과 심리치유를 통해 흔들리고 있는 학생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하나고등학교
Hana Academy Seoul

“학교체육이 희망이다.” ‘서울 하나고등학교’

글 국영호 | 스포츠조선 기자



‘한국의 이튼칼리지’ 표방...체육·예술교육 중시

지난 4월 6일 찾은 하나고등학교(이하 ‘하나고’)는 참 여유로워 보였다. 앞으로는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북한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뒤로는 학교건물은 대학교를 보는 듯 크고 웅장했다. 서울시 최초의 자율형 사립고는 특별했다.

하나고는 이날 오후 들썩였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한 가지는 학생들. 운동, 교내로 들어가자 음악활동으로 학교가 활기 넘치는 게 보였다. 교내의 운동장으로 들어서자 학생들이 불을 쫓아 이리뛰고 저리뛰는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스페인 FC바르셀로나 유니폼을 맞춰 입은 학생들은 녹색 그라운드 위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인접한 체육관에서는 남녀 학생들이 한데 어울려 배드민턴을 쳤다. 그 옆 등에서는 여학생들 한무리가 음악에 맞춰 댄스스포츠를 즐겼다. 다른 한쪽에서는 색소폰, 바이올린, 기타를 배우는 학생들도 있었다. 에너지가 넘쳤다. ‘명문대 진학을 노리는 학생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학생들 전체가 체육과 예술 활동에 빠져 있었다.

두번째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방문해서였다. 이 장관은 하나고를 찾아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의미있는 정책발표를 했다. ‘초·중·고 학생들의 체육과 예술교육 내실화 방안’이었다. 요지는 체육과 예술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교육이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돼 예체능을 등한시한 결과, 국민건강과 예술활동이 선진국과 비교해 바닥에 머물게 됐다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당장 중·고교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교과목으로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합주,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등 전문교과를 개설해 음악·미술 교과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은 이밖에 토요일 스포츠데이(Sports Day) 운영, 2012년까지 학생오케스트라를 150개로 확대, 융합·연계 수업개선 모델 및 지도자료 개발·보급, 체육·예술 담당교사 전문성 신장 지원 등의 방안도 함께 내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201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전면 배치하는 등 2013년까지 스포츠 강사, 예술강사 1만 7,854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스포츠클럽이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입학사정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장관이 왜 하나고를 찾았나 했다. 하나고를 둘러보니 의문이 풀렸다.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이 장관의 이상향이 축약된 곳이었다.

지난해 하나금융지주가 개교한 하나고는 ‘한국의 이튼(Eaton) 칼리지’를 표방하는 학교다.

이튼 칼리지가 어떤 곳인가. 영국의 사립고교로 1440년 헨리 6세가 세워 현재까지 20여명의 총리를 배출했다. 많은 영국의 정치가, 문화계 명사가 이 학교를 나왔다. 1,200여명의 남학생들이 기숙사생활을 하며 공부하는데, 특이한 것은 정규수업과 함께 스포츠 경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스포츠활동이 학생의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 있다. 이튼하면 크리켓, 풋볼, 보트 등 운동경기가 떠오르는 건 이 때문이다. 지난해 방한했던 토니 리틀 이튼칼리지 교장은 “미래 학교는 단순 지식보다는 학생이 평생 살아갈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곳이 돼야 한다”며 “학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위대한 학교는 삶을 배우는 곳이다”고 했다. 학업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열정, 진취성, 팀 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전교생 기숙사생활...‘1인 2기 프로그램’ 운영

하나고도 기숙사생활을 하며 전인교육을 하고 있다. ‘1인 2기 프로그램’ 운영은 하나고의 자랑이다. 체육, 미술, 음악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월요일에서 목요일 8, 9교시는 407명 전교생이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 필자가 찾은 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였다. 체육은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검도, 국궁, 복싱+웨이트트레이닝, 요가, 필라테스, 방송댄스, 인라인 스케이트 등 11개, 음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하나고를 찾아 간담회를 열었다. 요지는 체육과 예술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교육이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돼 예체능을 등한시한 결과, 국민건강과 예술활동이 선진국과 비교해 바닥에 머물게 됐다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





“ 예전에는 공부만 잘 시켜 좋은 대학 보내는 곳이 명문학교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학생들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체력과 예술적 재능을 키워주는 전인교육으로 가야 한다. 전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명문학교다. ”

약 24개, 미술 6개 강좌가 이뤄지고 있었다. 쉽게 말해 공부하는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체능을 통해 감성이 우수한 인간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도다. 세계 속의 한국 학생하면 공부만 잘하는 이미지가 아니던가. 하나고는 세계 속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학생들처럼 운동도 잘하고 약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적체 조화를 이룬 창의적 인재 배출이 궁극적인 목표다. 공부만 잘하는 학생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고 학생들은 중학교 때 공부 꽤나 한다는 학생들이다. 학교측은 학생들이 배우고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1인 2기 발표회, 축제, 체육대회 및 학교간 경기를 통해 교육효과 확인 및 협동,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 모두 흥겨워했다. 흔히 운동이 가져다주는 효과 중 대표적인 것이 사회성이라고 한다. 학생들 대다수가 이 영향을 받았는지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한 학생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는 공부만 하면 답답해서 학교를 못 다닐 것 같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니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 또, 같이 땀 흘리는 것 만큼 친구들과 친해지는 방법이 또 있다.”라고 쾌활하게 말했다. 다른 학생은 “오는 2학기 나아가 내년엔 3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입시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그때도 틈틈이 운동을 할 생각이다. 이제 운동을 빼고는 학교생활을 논하기 힘들게 됐다.”라고 했다. 다들 푹부러지고 눈빛이 푹뽕뽕했다.

체육교육 자체도 일반고교와 차별화됐다. 하나고는 이처럼 체육활동을 강조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체육교사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학교측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전문가집단에게서 찾았다. 석사출신 이상의 선수출신 강사들을 영입해 교육을 맡겼다. 체육교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현장에서 체계적인 수업을 받아온 선수출신 전문가보다 잘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다. 서울시청 축구선수로 활약한 김진우, 고려대 농구선수로 활약한 정민규, 성남시청 탁구선수로 활약한 권지희 강사들이 해당 종목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정민규 농구 강사는 “선수출신에게서 교육을 받기 때문인지 학생들이 강사를 신뢰한다는 걸 느낄 수 있다. 학생들이 배우고자하는 의욕도 상당하다”면서 “그렇다보니 기술을 금방 익힌다. 습득속도가 빠르다. 시간을 두고 가르칠 수 있다보니까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축구의 경우, 학생들은 전술까지 이해하고 플레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1년 넘게 축구를 전문적으로 배우니 가능한 일이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는 이처럼 엄청나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진정 스포츠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날 이 장관은 간담회 말미에 이런 말을 했다. 가슴 깊이 다가오는 말이었다. “예전에는 공부만 잘 시켜 좋은 대학 보내는 곳이 명문학교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학생들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체력과 예술적 재능을 키워주는 전인교육으로 가야 한다. 전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명문학교다.” 한국교육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의미심장한 코멘트였다. 눈 앞의 입시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풍토가 바뀐 만큼 이제는 몸과 정신의 건강을 돌아볼 시기가 됐다. 양적 팽창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던 우리 사회가 이제는 여유를 갖고 질적 향상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세계가 나를 키운다, 내가 세계를 키운다’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에 주력

이 학교 김진성 교장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김 교장은 1980년 고려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0여년 간 미국 대학(페리스 스테이트, 캔사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대학에 몸담으면서 중·고교 교육에 관심을 갖다가 하나고 초대 교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인간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교훈이 ‘세계가 나를 키운다, 내가 세계를 키운다’이다. 창의적인 세계인을 키우려면 기존과는 다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장은 학생들이 그들의 터전인 학교에서 행복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학원, 과외 등 학교

외 생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국내 중·고교 학생들이 안쓰러워서다. 교육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공교육이 위기라고 하는데, 지난해 개교 후 신입생을 받으면서 공교육을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 어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건강하며 감성적으로 달라졌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다.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면 무엇이 됐든 좋은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 교장이 강조한 것은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였다. 한국교육이 지금껏 ‘지’에 치우쳐 있다고 했다. 태초부터 인간이 기본적으로 습득해오던 ‘체’가 무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을 바로 세우자는 의미다. 그는 “미국 교육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 상식의 얘기다. 미국은 초등학교 2~3학년까지는 사회인이 되기 위한 기본예절교육을 비롯해 체육, 예술 등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하더라. 우리로 말하면 소위 국영수는 나중에 배운다”고 말했다.

체덕지를 강조하다보니 학부모들의 저항도 초기에는 만만찮았다고 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어렵게 입학시켜놓았더니 운동을 시키니 환장할 노릇이었을 것이다.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초기에 의심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마련이다. 김 교장은 “반대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왜 없었겠나. 지금도 일부 있다. 한국 실정상 입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도 많은 학부모들이 결과만 보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면서 공부도 하는 학생으로 키우고 있다는데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현실적인 문제, 즉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내신성적의 불리함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해법을 찾고 있다. 그는 “다른 학교에



“ 다른 학교가면 전교 1, 2등하는 학생이 여기와서는 200등을 한다. 대학입시란 게 성적갖고만 뽑게 된다. 때문에 수시입학을 위해 학생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면에서 체육활동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

가면 전교 1, 2등하는 학생이 여기와서는 200등을 한다. 대학 입시란 게 성적만 가지고 뽑게 된다. 때문에 수시입학을 위해 학생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면에서 체육활동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육활동이 입시에 반영된다면 이 역시 사교육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고도 했다.

김 교장은 이런 말도 했다. “미국 학교를 모델로 했다. 사실 일본 학생도 비슷할텐데, 외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동하다가 어둑어둑해져서 집에 간다. 그들도 물론 학원을 간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방과 후 곧장 학원을 간다. 그렇게까지 안해도 되는데 다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자신도 그렇게 된다. 사실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 대학 경제학에서도 미분, 적분만 알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미 고교 때 그 수준을 넘어 공부를 한다. 80 만점의 에너지를 쓰면 되는데 우리는 꼭 100을 채울려고 한다. 토플이 120만점인데, 우리 학교 학생의 경우 117점을 받았다. 그런데 만점을 맞으려고 한다. 미국 아이비리그는 98점이면 가는데도 말이다. 과잉상태인데도 모자란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어느 하나만 고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관련된 게 너무 많다. 교과부가 이런 사회의식의 변화운동을 벌여갔으면 한다.”

결국, 문화가 뒷받침돼야 비정상적인 교육문화가 바뀔 수 있다. 하나고 같은 학교가 좋은 선례를 남겨야 제2, 제3의 하나고, 나아가 이같은 학교들이 하나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야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하나고는 내년에 3학년이 나오고 첫 대학입시를 치른다. 이들이 향후 5년간 어떻게 학교를 끌고가는지 여부에 따라 한국교육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고 감히 생각 해봤다.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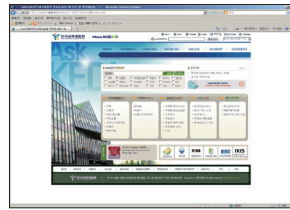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KEDI) 홈페이지



KEDI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영문 홈페이지
http://eng.kedi.re.kr



전자도서관
http://askkedi.kedi.re.kr



학교평가
http://eval.kedi.re.kr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방송고e스쿨
http://www.cyber.hs.kr



영재교육연구센터
http://gifted.kedi.re.kr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
http://edumac.kedi.re.kr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http://eduzone.kedi.re.kr



OECD 교육정보센터
http://oecd.kedi.re.kr



한국교육종단연구
http://kels.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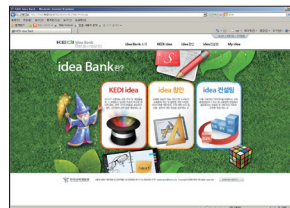
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



창의경영학교지원특임센터
http://www.schoolup.go.kr



교과교실 자원센터
http://scmc.kedi.re.kr



KEDI Idea Bank
http://idea.kedi.re.kr



글로벌교육협력연구센터(IEDC)
http://iedc.kedi.re.kr



Wee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
http://www.wee.or.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http://www.hub4u.or.kr



국가평생교육통계
http://lifelong.kedi.re.kr



학교선진화지원센터
http://serc.kedi.re.kr



사이버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lib.net



학교엔 ‘자율’과 ‘창의’, ‘다양성’과 배려가 살아 숨 쉽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지향합니다.
맞춤형 교육복지로 교육희망사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손으로 길러낸 인재들이 세계로 나가고 세계의 인재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꿈을 이루는 교육 ·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한국교육개발원이 디자인합니다.
‘선진일류교육’ ‘인재대국’ 한국교육개발원이 만들어갑니다.



1972년에 설립되어 지난 39년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온 한국교육개발원,
‘세계일류교육’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